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議員生活半世紀 對外屈伏은最初

『降服한卑屈漢은저게잇다』고 로이드죠오지氏이든氏指示痛擊

對伊制裁撤廢와 英下院의攻擊戰

【倫敦發電】英國政府는對伊制裁撤廢를 決定하는同時에 十八日 午後三時부터 右決定을 發表하엿는데 惑星 로이드·죠오지氏를爲始하야 勞働黨領袖는 모다 이든外相에게 肉迫하야 外交政策의 失敗를 指摘하고 痛烈히 非難하야 白熱的論戰으로 議場은 異常한 緊張을 呈하엿다 이든外相은 午後三時半 議場의 視線을 一身에 集中하면서 發言하야 伊太利政府에 對한 制裁案이 水泡에 歸한 事實을 率直히 認定하고 에디오피아帝國 陷落事實을 公然確認하야가로되 此際에 에디오피아政府를 復活시키려고하면 軍事行動에依할바게업는데 軍事行動에 訴하여서까지 에디오피아政府를 復活시켜려는 聯盟이 果然어대잇겟든가 英國政府는 新事態를 變更하기爲하야 地中海上에서 戰爭에 斷然 參與치안코 이미 無用에歸한 制裁案을 撤回하야 歐洲의 國際情勢를 調整하는것이 英國政府의 使命이라고 確信한다 라고 述하자 勞働黨席과 保守黨에서 猛烈한 攻擊이나와 이든外相도 不得已 約十分間 그냥 섯다가 이어서 一般外交問題에 言及하고 最後로 再次制裁案撤回의 必要를 强調하얏다 이든外相의 演說이 끗나자 勞働黨을 代表하야 元農相 그리인우드氏는 彈劾의 論陣을펴고 政府가 總選擧때에한 公約을 全혀 蹂躪하고 英國史上의最大의 政治的背信을 犯하엿다는것을 指摘하엿다 이어서로이드·죠오지氏가 發言을求하야 國際聯盟의 陣營은 아직 分裂되지안엇다 그런데 이든外相은 마츰내 쥬네브에 出馬하야 聯盟을 粉碎하려고한다 고 劈頭에 痛烈한 一矢를 應酬한後 佛國政府의 態度에 關하야 質問하야 이든外相이 이에 答辯하자로이드·죠오지氏는 攻擊의 論陣을 進行하야가로되 英國의 大海軍은 如何한 危機에도 充分히 對處할수잇는 萬全의 準備가 되여잇다。地中海諸國도 伊太利政府를 除하고는 모다 貴下를 支持할 意氣를 가지고 잇다。그런데도 不拘하고 貴下혼자만이 逃避해버렷다 나는半世에亘하야 英國下院에 議席을 占하고잇는데 首相의 다음가는 地位에잇는 閣僚가스스로 下院에서 英國이 敗하엿다는 言明을 듯는것은 實로 今回가 最初이다 고 語聲을 노피고 다시 大臣席을 가르치며

今番我等은 卑怯하게도 降伏하엿다그래서 저기에는 卑屈漢이 안저잇다

고 絶叫하자 野黨席은 一齊히 騷動하야 『首相登壇하라』고 騷動하야 議場은 混亂中에 볼드윈首相이 登壇하야 討議終結을 宣言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祖國이 脅威를 受할 境遇에는 全國民은 毅然히 武器를 잡고 起하엿슬것이다 그러나 聯盟規約을 遂行하기 爲하야 賦課되는 義務를 全國民이 自由意思로써 承諾함에는 더욱 一般敎育의 徹底가 必要하다

(寫眞은 로이드·죠오지氏)

獨伊兩國間 新通商條約成立

【羅馬二十一日發同盟】伊太利獨逸兩國代表는 去十七日以來 新通商條約締結交涉을 繼續하던바 二十一日에 至하야 兩國代表의 意見이 完全히 一致되야 新條約成立을 보게되엿다 兩國代表는 二十一日夜 會談結果에 關하야 如左한 共同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伊太利獨逸兩國代表는 新通商條約締結에 關하야 過般來數次會談을 遂하엿는대 會談은 友好裡에 終始하고 二十一日에 兩者間에 完全한 意見一致로 新通商條約案은 來二十四日 正式調印할 豫定이다

에디오피아의將來國語讀本第一課 伊太利軍占領下의 에디오피아 市民에對한 宣言書를 아디스아베바 土民들이 읽는 光景인데 이것을 契機로 하일레·셀라시에時代의 에디오피아 國語 아마릭語는 終焉을告하고 伊太利語가 國語로되엿다

五、六百名學生隊 上海北停車場占領

警戒線突破、激烈한抗日演說

再燃한學生排日運動

【上海二十一日發同盟】抗日運動畫策中의 上海各大學學生을 中心으로한 五六百의 一隊는 二十一日正午조금前 日曜日이라 市當局의 警戒가 弱한틈을 타서 突然 上海北停車場을 襲擊하야 이를占領하얏다 上海各界救國聯合會의 名義로 北中增兵反對內戰停止 抗日軍隊擁護對日戰線等 激烈한슬로간을 들고 南京當局에의 請願에 名을빌은 抗日데모라고 보이는데 이때문에 南京行上海發列車는 不通이되엇다 上海市政府鐵道當局은 一般의 通行을 一時停止하더라도 끗까지 彼等을 同地에서 阻止할方針으로 北停車場에 鐵條網을치고 路警局、公安局의 武裝警官이 共同租界를 工務局과 協力하야 包圍하고 外交部와의 交通을 遮斷하야 嚴重警戒하고잇다

【上海二十一日發同盟】北停車場을 占據한 抗日學生데모團은 그後 警戒線을 突破하고 各處에 殺到하야 二十一日午後二時頃에는 大略千五百名이 되엿는데 列車가나오지안흠으로 南京行을 中止하고 激烈한 抗日演說을 行하면서 閘北까지 데모行進을 繼續하엿다

兩廣聯合會總司令部組織에意見一致

抗日戰線指揮統制次

【廣東廿一日發同盟】二十一日朝 陳濟棠氏公館에서 兩廣首腦部會議는 李宗仁、白崇禧兩氏의 提議에基하야 兩廣聯合總司令部를 組織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엿스므로 蕭佛成氏의 名義로 二十二日의 西南政務委員會에 附議正式決定을 求할터이다 同案은 湖南出兵의 失敗와 中央側의 武力壓迫에 依한 事態切迫에 鑑하야 此際에 期於히 兩廣을 한데뭉치는 最高軍司令部를 設置하야 抗日指揮統制에 便하게하려는것이다

兩廣軍事統制內容

【廣東二十二日發同盟】二十一日 陳濟棠氏公館에 開催된 兩廣首腦部會議에서 廣西派首領李宗仁、白崇禧兩氏가 提案한 兩廣軍統制案의 內容은 兩廣軍을 統一하기爲하야 獨立軍事委員會를 組織하고 그아래에 西南聯合軍總司令部를둔다는것인데 陳濟棠氏는 同軍事委員長 兼聯合總司令官、李宗仁氏는 副司令官으로 各各 決定하고 白崇禧氏는 北軍正式 再建과 同時에 聯合軍前敵總司令에 就任하기로 內定되엿다한다 그리고 西南派는 冀東政權委員長 宋哲元 山東省主席韓復渠 湖南省主席 何健氏의 일홈도 同委員에 너흘터로 西南派要人談에 依하면 李宗仁、白崇禧兩氏의 前記提案은 이미 巨頭會議에서 決定되엿고 政務委員會에 附議함은 單純한 形式的에不過하야 그通過는 確定的이라한다 또西南側이 獨立軍事委員會를 組織하고 兩廣軍의 指揮를 實力統一의 擧에 出한것은 이미 雙方의 軍事行動에 依하야 危機切迫一觸卽發의 狀態에잇는 西南及中央關係에 拍車를 加하야 正面衝突을 促進할意向에 甚한것은 明白하다한다

土의「다」海再武裝 英國政府承認?

平時外國艦船通過禁止엔反對치안흐나 戰時自由通過權要求

【倫敦二十日發同盟】英國政府는 土耳其政府의 要求를 容認하야 다다넬스海峽의 再武裝을 承認할 意向이라고 解釋되는데 軍艦의 海峽通過에 關해서는 如左한 主張을 堅持할것이라고 觀測된다 卽 英國政府는 平時에잇서서 外國軍艦의 다다넬스海峽通過를 禁止하는데 구지 反對는 아니나 그러나 戰時에잇서서는 英國政府는 그艦隊가 自由로 들어갈수잇는 權利를 要求한다

에國伊主權不認 米政府今後態度

【華盛頓二十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二十日 伊、에兩國의 戰爭終熄을 正式으로承認하고 兩國에 對한 武器禁輸를 解除하얏다 이에依하야 伊、에紛爭勃發當時에 中外에 發한 中立宣言을 事實上 取消하엿스나 右는 에디오피아에 잇서서의 伊太利의 主權을 承認한것이아니오 武力에依한 侵略結果에 對한 不承認態度는 끗까지 堅持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明日로切迫한 道知事會

昭和十一度 各道知事會議는 官海空前의 異動의 뒤를바더 明二十三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기로 되어 全朝鮮十三道知事는 昨二十一日來 續續入京하야 二十二日은各各 總督府를 訪問하고 人事를 交換하야 벌서 淸新한 會議氣分이 總督府內에 찻다 明二十三日의 會議第一日은 宇垣總督今井田政務總監이 各各 重大訓示를하고 午後에 指示事項을提示할터인데 本會議는 總督臨席總監統裁下에 總督府各局長을爲始하야 官房課長、十三道知事가(土師慶南知事因病 松本內務部長 代理出席)出席하고 傍聽席에는 持永憲兵隊 司令官、佐枝朝鮮參謀長을 爲始하야 拓務省으로부터 本多書記官、滿洲國으로부터 特히 옵서버로 今年最初에列하는 鹽原國務院人事處長以下 四名等 約三十名이出席하야 意義기픈 朝鮮現下의施政方針을 中心으로二十七日까지 五日間에亘하야 左의 日程에依하야 每日午前九時부터 午後四時까지 重要協議를 進行할터이다

第一日 (二十三日) 總督訓示、政務總監訓示、指示事項
第二日 (二十四日) 朝鮮軍希望事項 諮問答申
第三日 (二十五日) 諮問答申、意見陳述
第四日 (二十六日) 意見陳述、協議
第五日 (二十七日) 協議

稅務監督局長會議

稅務監督局長會議는 來七月九日부터 同十一日까지 三日間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고左의諮問事項을 附議하기로되엿다

一、現行租稅制度實施及 稅務機構整備後의 狀況에 鑑하야 將來 措置를要한다고認定하는事項
二、關稅行政의 現況에 鑑하야 施設又는 改善을要한다고 認定하는事項
三、其他地稅整理制度의 改善에關한意見

四稅令勅令正公布

【東京電話同盟】滿洲國의 治外法權一部撤廢에伴한 酒、煙草、세멘트、삐어─四稅令은 上奏御裁可를 어더 二十二日勅令으로 公布되엿다

附屬地徵稅 違反者罰則公布

【東京電話同盟】滿洲國의 治外法權一部撤廢에伴한 關東州、滿鐵附屬地間接國稅反則者處罰에關한件은 上奏御裁可를어더 二十二日勅令으로 公布되엿는데 七月一日부터 實施되게되엿다

혼듀라스國 聯盟脫退

【테구시갈파(혼듀라스)二十日發同盟】혼듀라스政府는 聯盟을 脫退키로 決定하고 二十日 聯盟事務局에 對하야 脫退通告를 發하엿다。

二百億弗巨額支出案 米國今議會에서成立

【華盛頓二十一日發同盟】米國上下兩院은二十一日午前零時二十九分으로 第七十四議會 第二會期를 終了하고休會에 入하엿다 會期는 一月三日 開會以來 大統領選擧를 今秋에 압두고 議事를 促進하엿는데 兩院을 通過成立한 法律案中主要한者는 如左하다

一、出征軍人年金支拂法
一、稅制改革法
一、嚴正中立一個年延長法
一、十四億二千五百萬弗失業救濟處分法

따라서 第七十四回議會에서成立한 豫算 其他總支出額은 二百億弗의 巨額에 達하는대 그中今次第二會期의分은 九十七億一千六百萬弗이다

土地制度改革案 航空省新設案等

來月三日以降各省提出의重要案을討檢

廣田內閣의重要國策

【東京電話同盟】庶政一新의 大旆을들고 二、二六事件 直後에 成立된 廣田內閣이 現內閣獨自의 所謂新政策이라고 내세운各種重要國策은 드듸어 來月三日及 十日의 兩閣議에 各閣僚로부터 各各 各省關係 具體項目을 提出하고 繼續하야 數回에 亘한 閣議를 開하야 廣田首相을 爲始하야 各閣僚는 各主務大臣으로의 立場을 떠나 國務大臣으로서의 見地에서 順次로 이를檢討하야 愼重審議를 遂하기로되엿는데 可及的 七月十日의 閣議에서 實現될 重要國策의 各項目은 決定하기로되엿다 그런데 來月三日、十日의 兩閣議에 各閣僚가 提出할 國策案에 關해서는 目下 內閣調査局이 各省首腦部와 連絡을 取하야 愼重히 研究中인데 그中重要한것은 如左히 豫期되고잇다

一、中國鐵道建設의 援助及 對中經濟提携의 積極化(外務省關係)
一、貿易調整機關(外局으로서의 大貿易局)新設案(外務、商工兩省關係)
一、土木五個年計畫(內務省關係)
一、國立保健行政機關設置案(內務省關係)
一、町村統制實施案(內務省關係)
一、所得稅를 中心으로한 中央地方稅整理案(大藏省關係)
一、稅制整理計畫(同上)
一、專賣制度增設案(同上)
一、在滿兵力擴充(陸軍省關係)
一、日本內地師團增設及 其他民間航空計畫案(同上)
一、海軍國防補充五個年計畫案(海軍省關係)
一、航空省 又는 航空局設置(陸海兩省關係)
一、義務敎育八年制實施案(文部省關係)
一、農業保險實施(農林省關係)
一、土地制度改革案(同上)
一、製鐵事業及 原鐵石開發을目標로한製鐵國策案(商工省關係)
一、石炭液化低溫乾餾工業化(同上)
一、發送電의 國家管理 其他電力統制案(遞信省關係)
一、鐵道新設豫定計畫後의 根本的再檢討(鐵道省關係)
一、無任所大臣設置案(內閣關係)
一、東北振興案(同上)

그런데 廣田首相은 此等 重要國策의 項目決定에 當하야 참으로 國策으로 重要한 것이오 또各方面의 多年의 要望인것은 可及的 現內閣의 政策으로 採擇하야 財政이 許하는限 明年度부터 이實現을 圖할意向인데 此等重要國策의 項目決定과 同時에 七月十日의 閣議에서 重要國策遂行에 必要한 經費의 豫測을세워 明年度豫算編成에 當하야 優先的으로 이를決定할方針이다 그러나 此等根本問題는 前馬場藏相의 所謂財政計畫如何에 달렷다 卽 此等各閣僚가 抱懷한重要國策案의 施設에要하는經費는 陸海軍의 國防充實費만으로도 七億이란尨大한 費用을要하야 各省豫算을 合하면 二十數億의 多額에達할모양이다 이에 對하야 馬場藏相은 公債政策及 增稅計畫의 二大方針으로 當하여 可及的難局을突破하고 非常時豫算編成을 突破할 決意를示하고잇다 그러나 이公債消化의 點이 問題인데 各閣僚가 한 國策案도 뺄수는업스므로 來月十日의 結局 此等各項目中 무엇과 무엇을 現內閣으로서採用하게될는지 極히 注目할만한데 陸海軍의 國防充實案은 國際關係의現狀에 鑑하야 實現은 不可避하다 하더라도 其他는 單히 輪廓을 보일뿐이라 廣田內閣의 庶政一新 政策斷行의 聲도 依然 말뿐일것가튼 憂慮가 적지안어 廣田首相을 爲始하야 藤沼 次田 吉田三長官도 漸次 이點을 깨닷고 各閣僚에게 同意를 要望하고잇는 模樣이므로 來月三日以後의 閣議의 推移는 極히 注目되고잇다

체코國政府에서 匈牙利人入國禁止

【부다페스트二十日發同盟】最近 체코슬로바키아 政府는 國防法을 作成하야 國境地域의 匈牙利人의 入國을 禁止할 意圖를 示하엿는데 체코在住 匈牙利人은 此法案이 實施되는때에는 卽時 重大影響을 바들 憂慮가 잇서 二十日午前의 匈牙利上院에서 同法案이 依然 問題化하야 一議員은 政府에 對하야 이것이 匈牙利少數民族에及할 影響에 關하야 說明하고 아울러 政府의 意圖를 質問하얏다 이에 對하야 外相케야氏는 少數民族에關한 國際條約에 基하야 善處할터인데 法律的手段으로 不充分하면 他의 適當한 手段으로써 匈牙利人의 權利確保를 期하겟다는 旨를 答하엿다

人事·集會

▲金東勳氏(忠北知事)廿一日入京 本町호텔에投宿
▲李範益氏(忠南知事)同上 朝鮮호텔投宿
▲金時權氏(全北知事)廿二日入京 備前屋投宿
▲近藤常尙氏(全南知事)同上 朝鮮호텔投宿
▲伊達四雄氏(慶北知事)廿一日入京 朝鮮호텔投宿
▲鄭僑源氏(黃海知事)同上 朝鮮호텔投宿
▲上內彦策氏(平南知事)廿二日入京 山本旅館投宿
▲美座流石氏(平北知事)同上 朝鮮호텔投宿
▲孫永穆氏(江原知事)同上
▲竹內健郎氏(咸北知事)同上
▲湯村辰二郎氏(咸南知事)廿二日入京 本町호텔投宿
▲土師盛貞氏(慶南知事)─因病知事會議缺席 松本內務部長代理出席

八面鋒

◇對伊制裁 失敗의 事實을 率直히 言明한 이든英外相에게 對하야 로이드·죠오지翁 大聲叱呼曰。

◇나는 半世紀間 英議會에 參席햇지만 英首相의 次席가는 사람의 입으로 英國의 降伏을 吐白한말을 못들엇다。

◇英帝國은 그 威嚴을 지킬만한 海軍力이 잇지 안흐며 地中海岸 列國은 伊太利를 除하고 貴下를 支持치 안느냐고。

◇그리고 大臣席을 가리치며 우리는 降伏하얏다 저곳에는 卑怯輩가 잇다고 야단。

◇當然。

◇當代의 名大臣 이든이 十分間이나 漠然히 서고 잇슨것도 當然。

◇비는 올듯 말듯, 사람의 心가르면 축려 한숨기 헷스면 조흘듯。

고랑

영국 어떤 촌에 큰 술집이 잇어서 민간에 방해되는 일이 만흔 중에 어리석은 주광객은 술을 만히 먹음으로 그 촌 [illegible]

日本빅타─創立十周年記念
記念發賣·普及型
十年의두터운愛顧에報答하는
完全無比한新手提型!
(六月一日發賣)
이豊富한 內容!
○音響裝置에獨創的新考案을施하야音量이增大되엿습니다。藝術的音色은手提型으로서는 이지못할만치美麗합니다。
○外觀의意匠、싸운드·뽁스에新然新味를加하얏습니다。
○强力한모터! 標準型스프링·모─터─를使用。獨特한三段制動式其他도로─의角度、스프링入携帶用把手、針篋、레코─드容器速度調節器等에親切한改良을더하얏습니다。
○小型、重量僅十七封度。價格低廉。弊社十周年記念의奉仕的新品。
各特約店에詳細한說書가잇습니다。
HIS MASTER'S VOICE
J2-12·¥35.
新빅타─포─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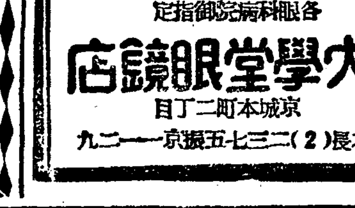
カオ テントン
丸善テントン商会 (カタログ進呈)
釜山府牧島
電話牧島長一〇八

世界的權威症名藥
韓氏膏藥
到處藥房有販賣
한씨고약이라고 차저주시오

朝報案內
集金人 廿一─廿五歲까지 保證金三百圓及市內確實한保證人二名要함 履歷書携帶午後一時로부터五時까지 京城本町二丁目紹介所又는弊店來談 株式會社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女店員 至急募集 年齡十八、九歲容貌아름다운朝鮮人事務員採用希望者는自筆履歷書携帶本人來談 面會時間自午前十時至午後三時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場所 船橋里新設競馬場
時日 六月二十日(土)、六月廿一日(日)、六月廿二日(月) 六月廿三日(火)、六月廿六日(金)、六月廿七日(土) 六月廿八日(日)、六月廿九日(月)
平壤春季競馬大會
勝馬投票券、單勝、複勝共二圓
主催 社團法人平南レース俱樂部

눈은學問의「窓」
姿勢는곳바로、眼鏡은正確



各眼科病院御指定
大學堂眼鏡店
京城本町二丁目
電話本局(2)二三七五 振替京城一一二九
眼鏡·双眼鏡カタログ進呈(要二錢)

榮養에 わ(와) か(가) も(모) と(도)
SAKAMOTO

이번降雨는全域에 移秧은順調로進行

京畿、江原兩道만아직도雨量不足

今年農形大略樂觀

기다리든비는 지난 십칠일부터 조금식 내리기시작하야 십구일 이십일까지 계속하야 경성지방은 이십일부터 개이엇스나남조선지방으로 전남、경남지방에는 이십이일 아침에도 오고잇다 이번비는 지방에따라서 다르나 보통 륙십미리이상 만흔곳은 백여미리나 온곳도잇서서 어떤곳에는 충분한곳도 업지는안흐나 전반적으로보면 충족하다는정도는 못가도 위선한때만은 완전히 해소될모양으로 이번비를기회로 이앙(移秧)만은 각지방이모다순조로히 될모양이어서 그동안한발로대용농작물(代用農作物)을심으는니 여러가지로 농형을념려중이든 농림당국도안심들하고잇는터이다 이제 작년사월이후 오월까지금년사월이후 륙월칠일(이십일일 아침까지)까지의 각지우량(雨量)을 비교하면 아래와가터서 작년우량보다별반큰차이는업고 경기 강원량도만은다소적어서 앞으로좀더비가계속해야 조흘모양이다

	前年	今年
	미리	미리
木浦	一七二、〇	一〇四、二
釜山	二九八、四	二三六、一
全州	一一三、九	一四九、一
大邱	一九二、五	一三〇、三
京城	一五七、八	八三、四
江陵	一八二、九	七九、五
平壤	八〇、二	一三三、八
新義州	九三、三	二一八、五
元山	六六、四	八二、五
城津	七一、二	三四、七

雨量은아직도不足 枯死危機만僅免

이번雨後京畿道農形

이번비는 경기도에서는 곳을따라 이십미리내지 삼십미리란 가와다 이십일일까지 경기도내 논(畓)의 총면적 이십일만정보 가운데서 약사할가량밧게 모심기는 되지못하엿스나 이미 심은 모가거의 말라죽게되엿든것이 도로 생기를 차리게되고 모판을 부족하든것도 이제는 걱정어서 되엿다 그러고 밧농사로서는 도내 칠천오백정보나되는 면화(棉花)농사가운데서 보리이랑에 심은것은 말라죽게되엿든것이 역시 모다 소생하게 되엿스며 그밧게여러 농작물도 대개 생기를띄여 무성하게되엿다

光陽에는豪雨

【光陽支局電話】 십칠일부터 잠잠히 나리기시작한비는 이십일일새벽에는 줄기차게내리여 그날오후한시까지 륙십륙미리의우량이 잇섯고 아즉도 계속하야 나리는중이다

淸道에도降雨

【淸道支局電話】 지난 십구일부터 오기시작한비는 이십이일아침까지 일백삼십오미리나 내렷다 그리하야 도처에서는 모를 심는다 야단법석이요 하늘은 아직도 흐렷스며 농부들의얼굴은 깃븜에 명랑하야젓다

濃霧中에驀進하든 特急과貨車衝突

今日午前四時頃新北靑驛에서

死傷은幸無、二時間後復舊

이십이일 오전네시경 함경선신북청역(咸鏡線新北靑驛)구내에서 화물차(貨物車)제오백칠십오열차의 긔관차를 다른선로에 너흘려고하든차에 라진(羅津)발경성행 급행렬차 제오백팔렬차가 급작히드러와 젼긔 긔관차와 정면충돌을하야 마침그곳에잇든 화물차한대는 탈선하고 급행렬차도 긔관차 수하물차와 이삼등차가 탈선하엿스나 승객은 전부은면하고 승무원은 다행히 모다무사하다고한다 원인은 야반인데다가 안개가끼여서 압히보이지 안헛든닷하여 조사중이라한다 그리고 현장회복에는 두시간이 걸리엿슴으로 경성행급행렬차는 정각보다 두시간 늣저 출발하엿스나 함흥역(咸興驛)에서 제오백팔렬차를 특별히만드러서 정각에출발하엿다

喧騷한서울거리

廿一日交通事故四件

電車、自動車、自轉車에치인生靈

이십일일에 일어난 서울 거리에 교통사고ー

▲이십일일 밤 아홉시사십분에 시내 교남정(橋南町)사십칠번지 압큰길에서 서내향촌정(香村町)서경석(徐敬石)의 장남 학원(學元)(?)은 불로상회(不老商會)배달부 류갑복(柳甲福)(?)이가 타고 가든 자전거에 치여 머리에 사흘동안 치료를 바들 상처를 입엇다

▲이십일일 오후에 시내 장기정(長崎町)십삼번지앞길에서 조선련탄(朝鮮煉炭)판매부『오ー트바이』운전수 장정수(張正洙)(?)가 운전해가든『오ー트바이』와 전차운전수 리준실(李俊實)(?)이가 운전해가든 전차와서로 바치여 『오ー트바이』는 『밴드』와 진흙받이가 굽어젓는데 손해는 오원가량이라한다

▲이십일일 오후 두시오십분에 시내교북정(橋北町)전차정류소안전지대(安全地帶)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잇든 시내 교북정 십구호에사는 유진혁(兪鎭赫)(?)은 시내장곡천정(長谷川町)경성택시운전수민정록(閔靖錄)(?)이가 운전해가든 자동차에 바치여 약이십일동안 치료바들 상처를 당하엿다 그 자동차는 서대문 형무소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아페서 오든자전거를 피하려다가 그만 안전지대에 올라서게되야 사고를낸 것이라한다

▲이십일일 오후 여덜시십오분에 경성부청압큰길가에서 조선정미소배달인 김명선(金明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미야코』타시운전수 강희석(姜熙錫)(?)이가 운전해가든 자동차에 바치여 오른편다리 허북지에 오륙일동안 치료바들 상처를 입엇다 그는 자동차압길을 가로건느려다가 그만바치게 된것이라한다

運動競技

全日本籠球決勝 普專惜敗

三對二로慶應優勝

【東京電話】 第二回全日本籠球選手權大會第三日、朝鮮代表普成專門對慶應BB의決勝戰은 二十一日午後二時부터芦山學校體育館에서 井田(主審)、關谷(副)三氏審判下에 開戰하바 猛烈한接戰끄테 三對二로普專이惜敗하엿다

慶應 3 (2…1 / 1…1) 2 普專

中等庭球豫選 普成李黃組優勝

京城高商主催의 第十五回全朝鮮中等學校庭球大會第一日(伊勢神宮派遣選手選拔)은 二十一日午後零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二十四組가 參加하야 開戰되여 普成李東泰、黃東坤組가 商新張日鵬、桂炳德組를 四對一로 이겨優勝하엿다 그리고 準決勝戰에 남은 四組를 伊勢神宮庭球大會에 朝鮮代表로 推薦하기로內定하엿다한다

◇第四回戰

普成(李東泰 黃東坤)4…2 高一(李錫 李春宰)

商達(尹錫彰 上谷)4…0 中農(安 西村)

文徽(李東燁 金景泰)4…1 大農(申東均 金)

商新(張日鵬 桂炳德)4…1 東中(安芳善 申東一)

◇準決勝戰

普成(李東泰 黃東坤)4…1 商達(尹錫彰 上谷)

商新(張日鵬 桂炳德)4…2 文徽(李東燁 金景泰)

◇決勝戰

普成(李東泰 黃東坤)4…1 商新(張日鵬 桂炳德)

職業野球經過

朝新主催의 兩職業野球團招聘戰 第一日은 二十一日午後二時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二試合이열린바 다음과가튼『스코어』로東京세네타ー스軍이 大阪타이거ー스軍을、全京城軍이 東京세네타ー스軍을 各各이겻다

◇投捕(세軍)野口ー北浦 (타軍)藤村ー小川、門前

타軍 000000120

세軍 00100201A 4A…3

◇投捕(全京城)吉本、李榮敏ー小笠原 (세軍)後岡、石原ー北浦

세軍 000401000

京城 00321002 0 8…5

城大陸上軍勝捷

九州大學對京城大學의 第八回定期陸上競技大會는 廿一日午後一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린바 結局 京城大學軍이 一四一點五、九州大學이 九一點五로 京城大學軍이 優勝하엿다

마라손兩選手 "伯林"서"初練習"

【伯林十九日發同盟】伯林에到着한以來 二日間은 市內見學으로지나던 마라손의 孫基禎、南昇龍兩選手 一行은 十九日午後三時에 宿舍가깟나는 반제이湖畔으로부터 競技場의마라손코ー스까지 十二키로半의코ー스에서 初練習을行하엿다 所要時間은 四十五分 모다輕快한步調로마치엇다 이날은三十度를 넘는氣溫의 더위를避하려고 하ー몬ㆍ제ー에 여행하러나온 獨逸人들은 이들의練習하는 光景을 熱中하야보고잇섯다 兩選手들은 다음과가티말하엿다

各國選手들보다먼저 코ー스를 달리는것은 痛快하엿습니다 汽車旅行二週日間에 몸은無理로 지쳣섯지만 오늘은好調로 氣溫의 變化에도 아무런 影響이 업섯습니다 練習을 달리는것은 故土에서 充分히 練習한터이라 何等의견듸길이 되지안습니다 아프로 四十日間의 練習을하야 必勝을期할니다

그리고一行은 廿日부터新宿舍에 옴겻다

女子中等籠球 進明、女高普各勝

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主催의 全朝鮮女子選手權中央豫選리ー그第二日은 二十一日午後三時부터 第一高女코ー트에서 열린바 進明、龍谷、女高、女師等이各勝하엿다

【第一次戰】進明女高對第二高女戰은 同三時부터 鷲尾、大草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結局二十二對十一로 進明이 悠悠히 快勝

進明 22 (3 19…4 7) 11 二高女

【第二次戰】同德女高對龍谷戰은 同午後四時부터 鷲尾、李性求兩氏審判下에 열린바 結局十八對十一로 龍谷이 快勝

龍谷 18 (8 10…7 4) 11 同德

【第三次戰】京女高對淑明戰은 同五時부터 李惠澤 朝師兩氏審判下에 열린바 前半女高 金淑子 太英熙兩포ー드의 活躍으로 斷然리ー드하더니 後半에들어가 淑明의 追擊猛烈하엿스나 結局女高軍이 二十三對十四로 快勝

女高 23 (12 11…9 5) 14 淑明

【第四次戰】女師對一高女戰은 同六時부터 鷲尾 林東洙兩氏審判下에 開幕한바 犬猿戰끄테 女師李英熙포ー드 金畢女(센터ー)의 猛躍으로 女師의强陣 第一高女를 十九對十二로 擊破하엿다

女師 19 (12 7…4 8) 12 一高女

都市對抗野球豫選

大每主催都市對抗野球朝鮮第一次豫選大會는 來月三日부터 京城球場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第一次豫選의結果 各地方代表는(中央)全京城 (北鮮)淸津鐵道(西鮮)平壤實業(湖南)大田鐵道(南鮮)全大邱또는 釜山鐵道군이라한다

▲三日 午後四時第一回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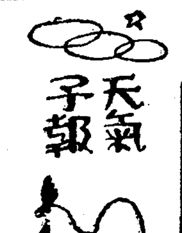
▲四日 午後一時 同四時準決勝

▲五日 午後二時決勝

疾走든自動車 六歲兒를轢傷

이십이일 오전열시사십분쯤하야 태평통(太平通)본사(本社)압길에서 운전수 황금정(黃金町)일정목 이십구번지 김학중(金學重)(?)이 운전하고 광화문(光化門)쪽으로 질주하든 경성택시ー의 경삼천오백이십일호자에 광화문통구십사번지 남순이(南順伊)의둘재아들 삼길(三吉)(?)을 치어 다리와 두부에 중상을밧고 즉시 서소문안전중환(田中丸)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중이라는데 전치약삼주일을 요할것이라고한다 그리고 원인이라는방금 본정서에서 조사중이라한다

天氣子報



概況 七六二粍의 高氣壓은 小笠原의 南海上에 퍼지고日本海로부터 朝鮮東岸까지도氣壓配置는 不安定하다 七五四粍의 小低氣壓은 九州北西部와 札幌附近에잇다 滿洲는晴曇不定 朝鮮은 흐리고釜山、大邱、江陵에는 幾雨가잇고 日本內地도흐리고 곳곳에 비가온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흘엇다 흐렷다하고 來日도갓고 京畿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七度二

同 最低 一四度八

今朝 最低 一七度五

今日 正午 二五度二

大邱市斷水解除

이번비로食水量充足

【大邱支局電話】 오랫동안 계속한 한발로인하야 경북(慶北)일대의 농가는 수미를퍼지 못하고 잇섯스며 도회지에서도 수원지의 물기근으로 단수하지안흐면 안될지경에 이르럿섯는데 이십일일오전 네시부터 나리기 시작한 비는 이십이일오전열한시 까지계속하야 경북일대에는 대체로 흡족한 우량에복바더각처에는 이앙이 시작되엿다하며 경북도 당국에서도 이번과회에 전부 이앙하도록 각군에 통첩을 발하엿다한다 그리고 전긔 시간내의 경북각지의 강우량은 다음과갓다

大邱 四九、五미리

淸道 一〇四、〇미리

達城 五〇、五미리

星州 四〇、〇미리

慶州 八六、七미리

또한일시 단수되엿든 대구(大邱)시내의수도는 이번비로써 충분한수량을 시중에 보낼수잇게되엿다한다

堤川郡農會의雇員 大金橫領코潛跡

京城에手配하야搜索中

충북경찰부에서는 어제이십일에경기도경찰부로 충북 제천군농회(堤川郡農會) 고원(雇員)이엿든 성옥손(成玉孫)(二○)을 붓잡아달라는 기별이왓다 성옥손은 작년시월에 그농회고원으로채용되여 일을보아오든중 금년사월십일에 그고을신홍규(申弘奎)라는 사람이 농회에벼이백한가마니를 맛겻는데 그담보매입금(擔保買入金) 팔백팔십원을 횡령(橫領)한것을 자미부처서 그뒤또그농회인장을 도용하야 이담보입에 제천군농회발행으로 자기가 벼삼백두가마니를 맛긴양으로 기탁보관증(寄託保管證)한벌을위조하야 그이튼날에 식산은행(殖銀)충주지점(忠州支店)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담보하고 돈일천칠백원을 꾸어쓰고서 지난십삼일부터 어대로인지 종적을 감초아버렷는데 시내 관훈정(寬勳町)이십구번지 리모(李某)의집에 가서 숨어잇는듯하다하야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는중이다

滿洲에서왓다는强盜 三峰鑛山에侵入

就寢中의主人을깨워脅迫後

現金三十圓强奪逃走

지난십칠일밤 열두시쯤에 경남 거창군고제면 봉산리(居昌郡高梯面鳳山里) 삼봉광산(三峰鑛山) 사무소에 만주에서 왓다는 강도두명이 드러가서 현금삼십원을 빼아서가지고 도망하엿다한다 그날밤에 강도두명이 그광산사무소에 차저가서 광주 김영곤(金榮坤)씨를 차집으로 그사무원김태옥(金泰玉)은 야경하려온 경관인줄로 알고 방으로인도하엿더니 그강도한명은 방박게서 광주를 깨워이르키고 자긔는 최근 만주에서온사람인데 돈삼천오백원을 내여노라』고 협박하므로 광주김씨는가진돈이삼십원밧게업다하면서 그것을내여준즉 강도는『오는이십오일에 또올터이니 남아지돈은 그때까지 준비하여두라』하고어데론지 도망해버렷다 그런데방에드러갓든 강도한명은 나이 이십칠팔세가량되여보이며 키는오척삼촌가량이고 수염은업스며 얼골은미남자로 생겻고 사투리는 충청도사투리를쓰며양복웃저고리를입고『지까다비』를신고 모자를썻다 그리고박게서 망을보든한명은 나이삼십세가량 되여보이고 키는오척삼촌가량되며 로동자들이입는 풀른비갈의 옷을 입엇다한다

범인들은 전북무주(茂朱)방면으로도주한 형적이잇다한다 이십일일까지에도 전연 그소재를 알지 못하엿스므로 경남경찰부에서는 경기도경찰부로 붓잡아달라는 기별을하여왓다

ダイチクレコード

ダイチク大行進

大滿員謝禮

順序가만흔관계로時間이變更됨니다 ◀七時三十分을七時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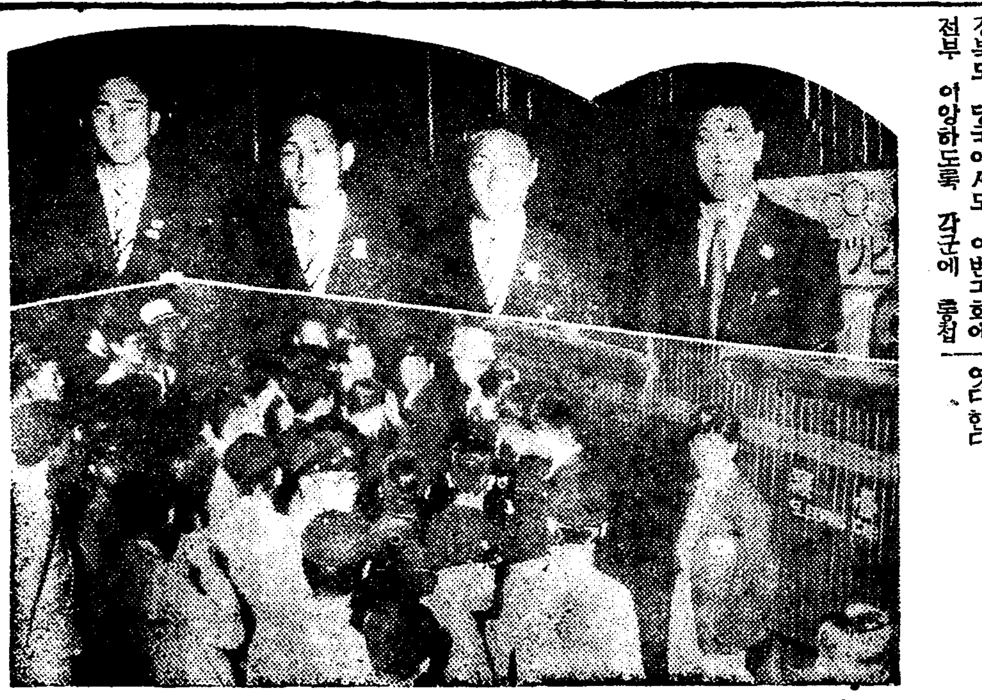
六月廿一・廿二・廿三日 於府民館

慶州高普의設立者 李圭寅翁遂永眠

廿一日午後六時身病으로

【慶州支局電話】 경주의번나는선구자며 경주고보의 설립자수봉 리규인씨(秀峰李圭寅氏)는 일즉부터 신병으로 인하야 요양중이든바 이십일일오후륙시경에마치내 향년칠십팔세를일기로세상을떠나고말엇다

(사진은 李圭寅氏)



寫眞은 左로부터 廉殷鉉 李性求 金容植 李奎煥 諸選手 下는 餞送하는群衆

우리의스포츠戰士 戰雲方濃한獨逸에

"正正堂堂히싸워서이기겟다"

曉頭！京城驛의歡送譜

백림(伯林)올림픽제패의 히망을 가슴속에 깁히품은 스포ー츠조선의 정예(精銳)용사의 렴은현(廉殷鉉)리성구(李性求)장리진(張利鎭)평양서승자)상선수와권투의 리규환(李奎煥)군 그리고 축구의 김용식(金容植)군등다섯용사는 이십이일 새벽세시오십오분 경성역을 통과하는 올림픽특별렬차로 장도에올랏다 이와 함께 동경으로부터 본단의 역원으로 또는 백림올림픽의 심판원외 요원을마튼 리상백(李相佰)씨와 조선체육회 명예비서로 올림픽시찰과 우리선수를 성원하러가는 정상희(鄭商熙)씨등 일곱명의일단은 평소(平沼)단장이하의 올림픽본대일백오십명과 아울러 올림픽성전을 목표로 전지등일로향하엿다

이른새벽 역두에는 우리의 용사들을 격려하는 각체육게 관게자며 모교의교직원과 동창들 가족들로써 역두는 일시는혼잡을 이루엇다 이옥고 발차의 벨렬(法悅)、무아무중의일순、쪽발하는 교가와 환송성은 잘드렷다 "부듸잘싸우고 오너라" "그때쯤이기고오마"의 주고밧는 인사가끗나니 우리의 스포ー츠전사를 시른 올림픽특별렬차는 국적감격의 열광과 흥분에싸혀 북으로!북으로 달리고잇섯다 일행은 전송하려 오륜(五輪)의 마ー크로장식한 올림픽렬차에 동승한기자에게 각선수들은 이땅을 떠나며 다음과가튼감회의일단을 해내동포들에게전하야달라는 부탁이잇섯다

拳鬪代表中東學校 李奎煥 談

해내해외에계신 여러동포의열렬한 응원과기대에 힘것 자중하야 조선남아의 사려잇는 용맹을 세계무대에서 자랑하며 분투해신하겟습니다 안녕히게십시요 다녀오겟습니다

蹴球代表選手 金容植 談

이번대회에는 약이십개국이참가할모양인데 대회전에 비공식으로 예선을행하야 실력개국만이 팔월삼일부터 토나멘트식으로 대전합니다 강적은 불란서 독일 이태리 우루과이등일가합니다 일본측구게를완전히정복한 조선의실력을 저울질하는데 조흔재료가 될줄밋습니다 가는길은 다마선진국의기술과 작전을 배우려는 것뿐입니다

籠球代表選手主將 廉殷鉉 談

이른새벽 경성역두에서 우리를 격려하며 성원하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길은 오직 경기장에서 싸우는것만이 아니고 조선의 젊은이로서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의 참된 정신을 발휘하야 여러분의 기대를 저바리지안캣습니다

一郡一店一道の場合は別に相談に應ず

代理店募集

本社 東京市京橋區木挽町八丁目八洲ビルヂング內 株式會社昭和公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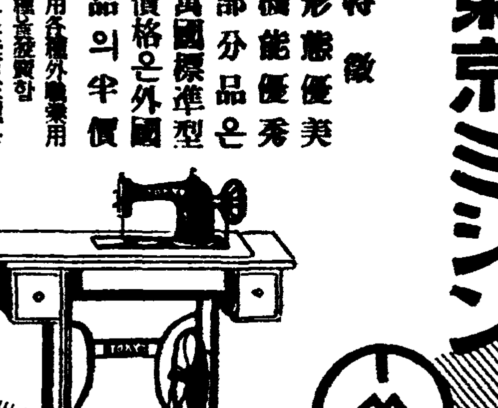
規則書申込所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一六一七番地 株式會社昭和公司京城支店 電話本局四五六六番

事務員募集 京城支店에서販賣事務에經驗잇는事務員을募集함

新發賣 東京ミシン

特徵 一、形態優美 二、機能優秀 三、部分品은萬國標準型 四、價格은外國品의半價

◎家庭用各種外職業用百三種을發賣함 國產으로는百三種은我社以外에는發賣치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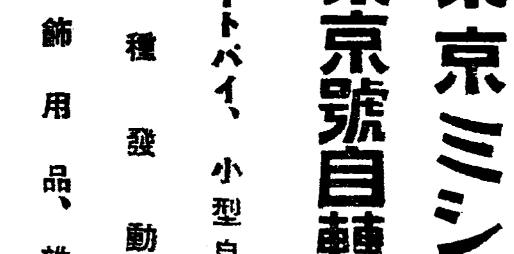


營業品目 東京ミシン 東京號自轉車 オートバイ、小型自轉車 各種發動機 服飾用品、雜貨

新製品 東京號自轉車

一、堅牢 二、輕快 三、優美 四、價格低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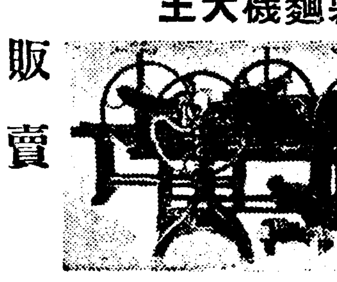
◎東京製自轉車의最優秀한技術을集中한것이此東京號입니다



スピードー膨脹機 (五合米가八升으로되는)

돈버리大王

製麵機大王



新案特許 長谷部式製麵機

ライト發動機鮮滿總發賣元

京城府元町一丁目百十七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四三一七・振替京城一八二四三

特價販賣 中島式製粉機販賣店

漁具

極上品延繩投網 五分目 二尋金八圓也 四分目 二尋金十圓也 捕鳥網 三間金三圓也

漁具卸商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2)四三九〇 振替京城一一二五六

定價表進呈

京城 金 金地金銀賣買所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本(2)〇〇七四番

Columbia

斷然懸賞레코ー드 人氣沸騰 물새야웨우느냐 期限六月三十日로臨迫!! 콜럼비아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山三三番

六月二十一日부터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晝一時半夜七時三十分開演

滿洲映畵社超特作撮影朝鮮版 아리랑 第三篇

同時上映 朝鮮最大名篇 監督…李奎煥 南宮仙、朴昌煥 旣往朝鮮發聲映畵中의最高完結篇!!

乙巳노르超特作全發聲日本版 海底의暴君

敎育映畵 돈 넬

團成社 映畵殿堂 全鮮第一

六月廿三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 午後一時半 六時半 〔次週부터 無聲映畵〕

◆M・G・M・超特作映畵 하바ー드・마샬 안・하데잉 主演 晩春 (Flame Within)

◆M・G・M・超特作映畵 윌리암・포ー웰 로사린드・락쎌 主演 米國의機密 (Rendezvous)

◆日活特作映畵 花嫁日記 杉狂兒、市川春代 主演

連日滿員! 滿都人氣는白熱化!

優美館 黃金町 電光三九五

流線怪盜列車 第二回中篇八卷 旋風兒존우엔氏決死의主演 샤ー래ー그래이孃助演

폭스社特別提供日本版 최ー래스라몬드氏監督作品! 키ー톤의脫線水兵 巨星바스타ー키ー톤氏主演 도로시아젠드孃助演

大都映畵社特作時代劇 石山稔監督作品 彌太ッペ流轉笠 海江田讓二主演 月宮乙女助演

大都映畵社特作時代連續 疾風蚰蜴 第中篇 近衛十四郎主演 三城輝子助演

第一劇場 鐘路五丁目 電光二七番

六月二十一日晝間부터三日間 大公開每日三回晝夜興行 三大巨篇當當上映 正午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繼映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大探偵劇 古城에扉 主演보리스、카ー로푸氏一人二役

現代劇 戀愛結婚制度 岡田嘉子主演

名畵 處女時代

항상위장이弱한분……입에서냄새나는분……疲勞키쉬운분

胃弱と頭痛に

船車旅行之時……頭重之時……氣分不快之時

仁丹은

高貴諸藥과함께適量의호르몬·삐타민을配伍한故로 消化器諸症의治療効果와아울너體力充溢、精力增進、精神明快의効能를發揮하야健康한분도必備할要藥!

胃腸

消化를돕고通便를整齊하며胃腸의違和를正하게하는故로仁丹이야말로慢性의분은持藥으로、胃弱、叶氣症잇는분의豫防에도好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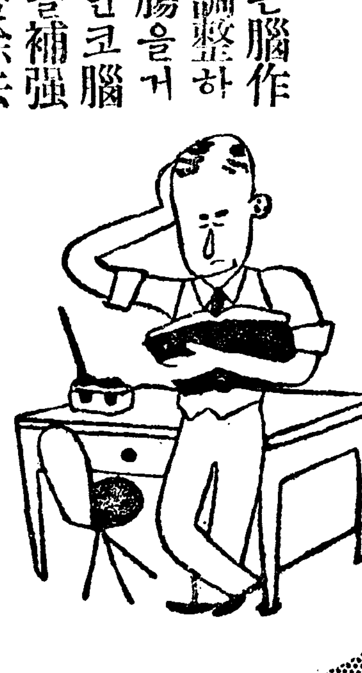
(食後에缺치말고十五粒)

健康

虛弱하지안트라도疲勞倦怠症의분은榮養의吸收가不良한故로、仁丹四五粒의常用은、血色을조케하며、참으로精根을增進하야頑健을約束합니다!

腦力

仁丹은腦作用을調整하며胃腸을거츨게안코腦組織을補强鬱血을除去한다、따라서頭痛、眩暈記憶力、減退等의분에는、絕對的常備藥!



清涼

精神을蘇活식히며口腔을清潔케하는仁丹은……旅行、雜踏、映畫、演劇、病慰問等에는必携。

鬱氣를除去하야、病을避하게하는唯一한口薰劑!

注意!

惡疫의豫防에

體力의涵養에

寸時라도잇지못할

銀粒仁丹

藥價

御試用袋(百五十粒)	十錢
富士容器附(三百二十粒)	二十錢
滿洲容器附(四百粒)	三十錢
家庭容器瓶入(九百粒)	五十錢
御德用分(一千粒)	五十錢
御德用瓶入(二千二百粒)	壹圓

仁丹本舖 日本·大阪 森下博營業所

굴비 고장

장마때가 닥친다
주부의 부억위생
그릇과 음식은 특별주의할일
쉬지안케 곰팡이 안피게

장마철이 되어 누기가 가득차게되때는 온집안을 모조리 잘손질하고 정리할필요가 잇는것은 더말할것이업겟지만 특히 부억의위생, 즉부억을 깨끄시하는데 대해서 십분 주의하지안호면 안될것입니다 말슴안드려도 여러분이 더잘 아시겟지만 부억은 우리네가 먹는음식을 맨드는곳이라 사실에잇서서 잠자는곳보다 더소중히 역여 정결히 하지안호면 안됩니다 가을이나 겨울과 달라 여름에는 더주의하서야지요

◇

몬저 맨드러노흔 음식이나 그릇종속을녀허두는 부억찬ㅅ장가튼것은 자조 뜨거운물로 닥거야합니다 그리나남비뚜겅이나 외질그릇 가튼것은 소고기운이 부러잇서 한사나흘 쓰지안코 두면파ㅣ란곰팡이가 피게됩니다그럼으로 곰팡이가 설찻눈에 보이지 안트라도 뜨거운물에깨끗이 닥거서 쓰는것이 올습니다

◇

그다음에는 행주인데 행주는 깨끗이빠라 될수잇는대로 볏헤말리고 하로한번쯤은 뜨거운 물에 드러갓다 나오게하는것이조습니다 그리고 유리장이나 부억문이 비오는날이면 더러운 먼지와때가 끈끈해져서 손에나 옷에 잘붓게되니까 역시뜨거운물로 닥도록하십시요

음식물로서는 반찬이나 밥가튼것을 쉬지안케 해야합니다 쉬다는것이 결국썩는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먹고남은 밥을 둘때에는 밥통에 담스되 먼저 밥통속초(먹는초)칠을하고서 그리고서 발을담고 베헝겁으로 씨워두십시요

◇

된장이나 고추장찌개남은것도 곰팡이가나거나 쉬기쉬우니까 애초에끄릴때 짜게하거나 설탕이 만히들면 쉬 썩네가 별로업고 곰팡이 안피게하자면 다시마쪽을로두겅을 푹헤두면 문제업습니다

◇

푸성귀등속은 소쿠리에 담어 바람이 잘통하는 마루미혜 두면 께오래 싱싱한채로잇습니다

그리고, 버섯이나 오징어 다시마 가튼것도 광우리에 담아 바람이 잘통하는 곳에 매달고 날조흔날은 때려헷볏을 쪼이게하십시요, 좋초 팃(간쓰메)은 두겅 딴것은 아주 두겅을여려두는것이조코 자조 물끼운을 드리는것이 먹어서 위험지안습니다

◇

칠그릇——바탕대라 돈지쟁반것도 주의해야합니다。물 누기가 차지안케 마른 헝겁으로 닥고 또닥거서잘 차두십시요 그러치안흐면그릇이 쉬벗거집니다。

어머니손찌검에 자식들이 병신된다
—제일겁나는벙어리·귀먹어리—

「귀먹어리」나「벙어리」는 나면서부터 되는것도 만치마는 대개는 생후 그어떤고장으로 인하야 그러케 되는수가 만습니다 지난번동경 맹아학교 좋게에의하면 「귀먹어리」「벙어리」노서튼 한명가운대 나면서부터 이러케 된생도가 아홉명 (그중세명은 배안에서의 사고로)이요 그외 수물두명은 모두 폐염 마마 성홍렵 뇌를때린것

뇌막염때문에

된것이라합니다。이것을보면 얼마나 생후에부모가 어린애에게 주의하여야 할것입을 알수잇는것입니다。

그런대 이제이것을 다시 각지방맹아학교 열한곳 재학생 삼백오십이명에 대하야 조사한결과 내이염 (內耳炎) 때문에 실관(失官)되시기록보면

한살때되에기 일백열한명
두살때되에기 일백열아홉명
세살때되에기 여든두명
네살때되에기 수물아홉명
다섯살때되에기 열한명

이러합니다 그리고 열네살까지 한명내지

아홉명이라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한살서부터 다섯살사히에 여러가지 병환으로 그러케된것이라고 볼수잇습니다 그러면 어린애를 나흔 다음 어머니는 그애가듯는것이나 말하는때 고장이 잇고업는것을 시험해보아야 알것입니다。

×

어떠케 하여야 이것을알수잇슬가? 그것을 알려면 생후이십일이 지나면 어린애의 대소변을 어머니가안꼬서 식히는대 그때마다어머니는 자긔호흡이 어린애의 머리와

팔에닷치안케

하고 『쉬쉬』하십시요 반년후 말소리를 내게될때에 어린애가 대소변을 보것다고 『요요』『쉬쉬』하면 그것들벙어리로 『귀먹어리』로 안입니다

×

그리고 어린애가 몸을 자유로 놀릴때쯤해서 자고깬 다음 어린이를 문밧게서불러 봅니다 이것을 보통사람은 다들을수 잇는대 이리나는 편으로 어린애가 몸을 돌리지 안흐면 그것은 귀먹어립니다 그리고병아른후에도 벙어리나 귀먹어리나 되기쉬운대 이것도

이런방법으로

시험해 보십시요。

×

그런대『귀먹어리』나『벙어리』인줄을 알게되면 그다음은 어떠케해야될까! 원래 이런애들도 전혀청각이 이저진것이 아니오보통사람과 비교할수 업스리만치 청각이 약한것뿐입으로 『레시-버-』나 확성긔등의 긔게로 훈련하면『레코-드』도 드를수잇고 또떠러지지 안는입도 말을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귀먹어리나 벙어리를 속히 발견하여 이러케 잘 훈련시키면 보통사람과 가티됩니다

영환이 『나는 자라서 목수가 될까』

어머니 『엇재서……잘만하면 그도조치』

영환이 『아니아 강거너저언덕에 정자를 지어노코 거기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서볼까 해서』

(글쓴사람 섬춘두)

童話

소년과 고양이 ②
金瑩根

그리고 급히 소년의가슴에안겻습니다。이것을본 상인따님은 시기하여 고양이를 다시빼아서서는 노끈으로 단단이 묵거서 배에 실엇습니다。소년의힘으로는 엇지할수업섯습니다。배는그만 섬나라로 떠나고 말앗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밋고 지내든 고양이 마저 뺏긴 소년은 극도로 서러웁고 상인따님의 야비한 행사가분하고 분하엿습니다 고양이를 뺏긴 뒤에는 소년은 밤에 잠을 일울수가 업섯습니다。고양이업는 눈치를 채인쥐들은 잠을일후게하여 어느날밤 편안이 잠일우어 본적이 업섯습니다。상인따님은 이소년에게 꾸지람은 전보다 배나 더하엿습니다。이러케 학대를 바들때마다 그집에잇든 하녀는 자긔와가튼 처지라하여 소년을 불상히 생각하여 늘 위로해주엇습니다。하로는 소년이 먼하늘을 바라보며 이집을 떠날생각에 머리를 알코잇섯습니다——

『너는 무엇을 그러케 멀건이 바라보고 잇늬?』

하녀가 여페 잇다가 이상스러이 여겨 이러케 물어보앗습니다

『아니 별로……』이러케 말하면서도 소년은 작고 먼 그곳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잇섯습니다 그러다가 그는별안간 하녀를 보고

『나는 이집을 떠나 멀리 철쳐이 떠나갈터이다』이러케말하엿습니다

『뭐—너 웨그런 생각을하니』 하녀는 저하고 고생스러웁드라도 가티 잇자고 몹씨 말리엿습니다 말림도 듯지 안코 소년은 봇짐을 싸가지고 그만 그집을 나왓습니다。하녀는 아모쪼록 무사히 단녀가라고 부탁하며 눈물을뿌려 작별하엿습니다 소년은 고양이마저일코 하녀까지 리별하고보니 세상에 외로운것은 자긔밧게 업다고 생각하엿습니다 서울을떠나 한오리나되는 어느마을까지왓슬때에 쉬자고돌담 우에안젓슬 때입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맑은둥 긔틀을코 구슬프게도 은은히 들려왓습니다。그종은 서울 시내 어느 교회당 종소래엿습니다。소년은 서울을 상상하여도 소름이끼칠 정도이여서 그자리를 옴겨도 것기 시작하엿습니다。얼마만가서 종소리는 또 들려왓습니다。그종소리는 맛치 소년을 불르는것갓습니다。그러나 소년은 저주스러운 서울을 비우섯습니다。그리고는 섭어워서 눈물을 훌리면서 울엇습니다。그종소리를 뒤에두고 눈물을 씻어가며 자욱을 도라보면서 또떠낫습니다。종소리는 또울려왓습니다。세번째 종소리를 들은 소년은 무엇을 결심한듯이 서울을 향하여 한참동안 바라보고잇섯습니다。

『나를 학대하는것은 주인따님밧게 잇느냐? 주인과 하녀는 얼마나 친절하냐?』

소년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한거름 두거름 옴겨 서울에 돌아갓습니다。

소년이 서울에 갓슬때에는 상인이 외국무역상을 갓다가 고양이를 만흔 보물을 밧고팔엇다는 소식을 들엇습니다

어느 흑인들사는 섬나라에갓슬때에 상인은 그나라 왕의 초대를 바더 궁전연회에 참석하게되얏습니다 왕은 정성을 다해서 신하에게 명하여 훌륭한 음식을 채렷습니다 그런데 놀래지아니할수가업섯습니다 맙가튼 쥐들이 잠시 모다들더니 그음식을 다 집어먹엇습니다 왕은 대단히 섭섭히 생각하엿습니다

『저쥐를 잡을수업습니가』 이러케말하엿습니다

『이나라에다니는 상인이 만치 아직도 쥐잡는 법을 아는이가 업섯습니다』

『님검님 제가 금번 쥐잡는 고양이를 가지고 왓습니다 님검께서 소용이시다면 올리겟습니다』

『네! 고양이! 잇다고요 그고양이라는것은 대체 무엇입니가?』

『하하하! 당신은 지금까지 고양이를 보시지를 못햇습니까?』

『네 그런것은 이름도 처음듯습니다』

『고양이는 사자의 일족입니다』

이말들은 님검은 매우 비우스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쥐를 잡는 즘생을 천하에 구하엿습니다만 아직도 보지못하엿습니다 사자도사왓고 범도 사왓습니다 이런맹수들까지 하나 잡을줄 몰낫습니다 고양이가 쥐를잡는것은 당치안흔말슴이올시다』

이말들은 상인은 서원에게 명하여 고양이를 배에 가서 가저오게하엿습니다 고양이가 쥐잡는것을본 님검은 그때야 궁전이 깨지듯 박수를 치면서 매우 깃버하시엿습니다

『이나라 땅을 절반 드리더라도 이고양이만은 저의나라에파시요』

왕은 깁븜을 참지못하여 이러케 말하엿습니다——

드디여 금을 너흔 주머니 여섯개를 밧고 상인은 그만 쾌히 승락하엿습니다 상인은 이 돈을 가지고 자긔나라에 왓슬때에 상인따님은 험벗고 거지 가튼 소년에게 주지말자고 하엿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원래 정직한 사람이여서 그만흔 돈을 모다 소년에게 주엇습니다 소년은 이돈을가지고 그집에서 자긔와 고생을하던 하녀를 안해로 삼어 서울에서 제일가는 부자로 안락한 생활을 하엿습니다。(끗)

하이따이빙
육탄폭격긔

이번여름 독일에서 열리게되는 월게관을 목표로하고 미국의하이따이빙선수들이 『노—코니안』호수에서맹렬한 연습을하여습니다 날개도친 인어(人魚)라할까? 아니 전세게가 비상시에 처해잇스니까 육탄 폭격긔라고나 해둡시다。

가정의학

問 결핵성농흉

저는당년 이십구세의청년이온대 십년전화농성 늑막염(化膿性肋膜炎)에걸녀 즉시 평양기독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치료를 바다보앗스나 종시 낫지안코퇴원을하여 자택치료를하다가 일년만에는 경성총독부 병원에입원하고 갈비때 사오대나 절단까지하고 일년간 치료를 하여도 낫지아니함으로 퇴원을하여 가지고 십여년간 지금까지 고름이 류출하와 고민중이오니 무슨원인으로 완치되지 안습니까 조흔방침이잇사옵거든 하교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中和惠閑生)

答 보통화농균(化膿菌)에의한 농흉(膿胸)이아니고 결핵균이감염된 까닭인듯합니다 『세—데—식 늑골절제수술까지 또든 모양인데 그래도 잘낫지아니하다한오니 대단히괴롭습니다 그러나 반다시 나을것입니다 과히비관치마시고 세척(洗滌)료법과아울려서 전신료법에 특히류의하십시오 즉영양공긔 광선요법등을 리용하야 일반적으로 신체저항을 도읍도록힘쓰시는것이 긴요합니다

(城大醫院 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家庭齒科醫學
세부란스病院 金喆庸

問 발치(拔齒)한후 피가끄치지안는것은무슨까닭(理由)입니까

答 대개혈액병(血液病)이잇는 사람이든지 이상(異常)한 수술로는끄치지안습니다 그외에 치조농루증(齒槽膿漏症) 혹은괴혈병(壞血病)에 병이 잇는경우에는지혈(止血)되기어렵습니다

★曆★

六月二十三日(火)

陰甲午五月大(初五日)

丙子·水·翼·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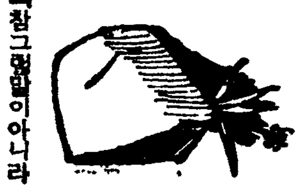
●祭祀에宜함

●夏至二十一日(陰初三日)

●小暑七日(陰十九日)

連載小說

옥심이【五】



金廷漢 作
安夕影 畵

『참그럼말이아니라 오늘배암사 농사조합에도 가봣는데 내헌테는 비료대부 안하겟다고 허드군 무슨 뜻이지?』

『뭐요? 왜그래요——?』

싀어머니는 어지간이 놀랏다

『모르지。중의 속 알수 잇든가!』

『또 논떼여갈 작정 아니겟소?』

『그럴는지도 모르지。』

싀아버지는 남의 일가티 대답한다。

『아이구 그럼게요 그래요。또 바위네도 논뗄때 그리드러우。인제 큰일 낫소。큰일나!』

『………』

『아이구、모두가 천수 그놈 죄다。병신자식 가진 죄다。그놈 아니면、이집 살림에 이러케는 안됏슬게고、딸자식도 안팔앗슬게고……그놈 한놈 바람에 인제이집안이 씨도 손도 업시 망하고 말것이다。아이구 그놈 얼른 죽지도 안코……원수원수 그런 원수가 또잇슬까……』

『그 무슨 소리냐、요망스럽게!』

싀아버지는 끄닐줄을 모르고 쫑쫑거려대는 안해를 낫지업게 룽소아주고는、쓴헙를 두어번쩍쩍 차드니 곰방대를 특특털런다。

옥심이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부억을 나왓다。그날 밤이 새도록 그는 잠한숨을 이루지 못햇다。

이튿날로서 옥심의 집 부억은 마지막이엇다。그는 안십장의 호의로서 다행히꾸지람 한마되도 안듯고 일을마첫다。물론 그대신 그보다못하잔케 맘괴로운바야 잇섯지만그리고 그것이 옥심이로 하여곰 일을마첫다는것이 깁브다기보다 오히려 저윽이 섭섭한생각을 가지게한것이다。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약한게 아닌가?)

그는 은근히 무슨 말이 잇기를 기다리는듯한 안의 아플잔찻코 떠낫슬때、이런 생각을 햇다。안의 그 적적한 눈찌를 못이즈면서

그래서 그는 다시 쨍일혼 매가되여、그날 저녁에도 병든남편에게 밥을 가저다주고、호느적호느적 집으로 돌아올때엿다 막 동리압 다리를 건너랴니、

『옥심이!』

하고 뒤에서 누가 부른다。

오래동안 안불리든 일홈이라 더러、때가때요 자리가 자리만콤、옥심이는 귀신을 맛난듯이 머리끄러 쭈뼛하고 등골이가선뜻하며 발이땅에붓는다 그리고 가슴미테서 상방망이를 치듯한 소리가 들렷다。

『옥심이! 놀랠것 업소、내요』

두번재의 소리에 옥심이는 겨우 뒤를돌아보앗다。——말소리도 터려 들은 소리거니와、훌쭉한 키에 구겨진 나까오리를 푹 눌러쓴 꼴이 달비체 얼른보아도 안십장이다。그는 뚜벅뚜벅옥심이겨레 갓가이 오드니

『만히 놀랫지요?』

옥심이도 겨우 맘을노코

『아이구 참 놀랫서요。』

『잠간 할말이 잇서서——』

안은 밥브게 눈짓을 하고는의심업시 돌아선다。

할말이 어떤것인지는 옥심이도 짐작은 햇지만 망서릴새도 업는지라 그저 못이기는듯이안을 따라선다。

안은 독갑이처럼 말업시 시내 위쪽 향해서 작고만 발을 밥브게 떼여놋는다。옥심이 역시 귀신에게 홀린 사람 가티、사박사박 모래를 밟으면서 잡잣코 그의 뒤를 따라 갓다。

그들은 한참동안、밋밋한 포프라 그늘을 지나고、자갈바를 끼우뚱거리고、돌사이를 더듬어나가서、마참내 놉다란 절벽아래다달엇다。그 험준한 절벽 미테서 내물은 비로서 강가티 크다란 구비를 지우고 빙—감돌아서 흐른다。발서 다리는 보이지안코、거긔서는 어떠한 일이 잇드라도 들을사람 볼사람 잇슬라업다。

『저기가 조켓지요』

안은 옥심이를 더리고 바로 절벽·미트로 갓다。그리고 그들은 겨우 무거운 짐을 버슨듯이 은가루가튼 세모래우에 두다리를 뻬고 나란이 안젓다。

그러나 옥심의 가슴은 새삼스럽게 뛰기시작햇다。하긴 여태 외간남자하고는 서로 말도 갓가이 잘못해본 그인만콤、아무리 어릴때 한동리에서 가티자라난안이기로니 그러한곳에서 더욱이 아닌밤중에 가티안게되고야 수집은 정과 두려운 생각이 북바치지 안흘수 업섯다。

『옥심이!』

안은 비로서 말소리를 노핀다。

옥심이는 대답은 업서도 가슴은 연방두근두근。

『나를 미친사람으로 생각하실테지요?』

안은 짐짓 예사로 말하면서도 힘이 잇는 소리다。

貧困과 困難의 作家

고ー리키ー의 生涯와 藝術

그의 突然한 訃報를 接하고

② 咸大勳

苦難의産聲

「막심·고ー리키ー」가 세상에 나오긴 一八六八年 三月二十六日 「톨스토ー」이늬의 傑作「戰爭과平和」가 나온는 그해엿다 詩的으로 아름다운 볼가江畔「지주니노브고로드」에서 家具商을 하는 「막심·페쉬코프」의아들로 태여난 그는어려서부터 가난과 싸우지 안홀수가업섯다. 그의이름이막심 고ー리키ー라고하게되엿것도 이가난과 苦痛에서 지여진것이니「막심·고ー리키ー」는 露語로「最大苦痛」이란것을 보드래도 알수 잇는것이다.

일즉부터 그의境遇는 어둠속에서 헤매엿다. 세살때 그는 虎列剌에걸려 呻吟하든끄테 겨우 蘇生이되엿스나 不幸히도 그무서운病은 그의父親에게 感染하여 그를 저世上으로 떠나보내고말엇다. 그런데 아버지를 여힌 그에게 또한가지 暈이 생겻스니 그것은 男便을일흔어머니가 어린고ー리키ー를 그대로 두고 改嫁한것이다. 그것이 罪가되엿는지 그는 곳肺病으로 世上을 떠낫지만 고ー리키ー는 이리하여 天涯의孤兒가 되것이다. 依支할길업는 그는 겨우祖父의품에서 길리웟스나 그의孤兒로서의 苦難의生涯는 飢餓와 貧病이엇다.

그러나 比較的敎養잇는그의祖父는 그에게 글을가르첫다 그後小學校에 入學하여 겨우通學할수잇섯는데 이것도 不運하여 入學한지겨우 五個月만에 天然痘로 休學하게되엇다 그病이나흔後 그는가난한 生活때문에다시校門에 드러설수가 업섯스니 그리하여 그後그는 學校敎育과는永久히 떠나버리고 말엇다 그러나 또한가지 그에게 닥처온 悲劇은 組合長選擧에 失敗한祖父가 自暴自棄끄테 멋조안되는 家産을 蕩盡하야 그는참으로依支할수업는 몸이되고 만것이다 그러치만 그에겐 이런會運가운데도 한가지 볼비아도가려보드려운 慈悲가 잇섯스니 그것은 그의祖母의 慈愛이엇다 차듸찬 겨울바람이 휘모라치는 嚴冬과 가튼家庭에서 少年고ー리키ー의 가슴엔 그래도 이祖母의 손이 봄비탈가티 숨여들엇섯다 그보드러운情에 그는 일즉늣기지못한 平和가잇섯다 溫情이잇섯다 더구나 그祖母가 이야기해주는이상한 이야기! 그는이리하여 그의「로맨틱 렘떼라멘트」를 釀成식혀섯다 이敬虔한 老婦人의이야기에 그는굼주린배도 꿈꼬줄몰으고 고요한꿈속으로 드러갓섯다 그리하여그는 異常한꿈에世界를 擅憾하게되고 또 平凡한것을 실혀하든 그의라고난性格은 좀더空想的인 明朗性이그를 支配하게되엿다

放浪生活

祖母의慈愛!ー그것도 한瞬間! 닥처오는 悲運은 그로하여금生活을 自身이 억지안흐면 안되게되엿스니 이리하여 그는 처음으로 구두방에 심부름군으로 드러가게되엿다 그러나 어린그는 壓制되지 滿八個月만에 그곳을 脫出해나와다。

그의自叙傳에 依하면 『그어떤날 主人에게드릴 물을 끄리고잇섯는데 끄리든 飮食物이 업프러저서 손에火傷을 입엇다 그밤 나는 다라나집으로 오라왓는데 祖父님이나를 꾸지즈므로 다시 畵圖그리는 집으로 壓觸사리를갓다』고한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괴로운속에少年時期를 지난것을알수잇다 그러나 거긔서도 一年이못되여 脫走하여 다시 畵像그리는집으로갓다 그러나 奉仕不如한 그의 性格이 그로하여금 오래잇게하지를 못하엿다 그리하여 그집에서도 오래 잇지를 못하고 다시 自由廣大한天地가 展開된 새世界로 하늘을 나르는 새와도갓치 何等의 拘束도 밧지안엇고 曠野를 橫行하는 猛獸과가티 恐怖를 늣기지안코 그의로맨틱한 性情은둡히절엇다 이리하여 그는 放浪의길을 떠낫다

그리다가 겨우安定된것이 볼가江을往來하는 汽船의 廚夫이된것이다 여긔서 그는「스무릴린」이라는 退職軍人인「쿡」에게 文學上敎養을 싸흐거니와 그가 後年에쓰는「三人」에서 그當時放浪의길을것든 그心情을 그린 詩一句를 한번 외여 그때의 그의心情을 알어보고저한다

『마음은 시들고
다리는 앞퍼
갈길도 업는몸!
아!내어머님인大地여
나는 어데서 헤꺼나
말을 헤다오
나는 이몸을 눕히여
寒冷로운 어머님의
프른가슴에 안기련다
그리고 마음에 울들리는
그소삭임을 나는들엇노라
오너라! 이곳으로! 쉬여라 여긔서,

얼마나 그는 어데 放浪生活에 몰라고 잇섯는것을 우리는 이 詩한句로 明明히 알수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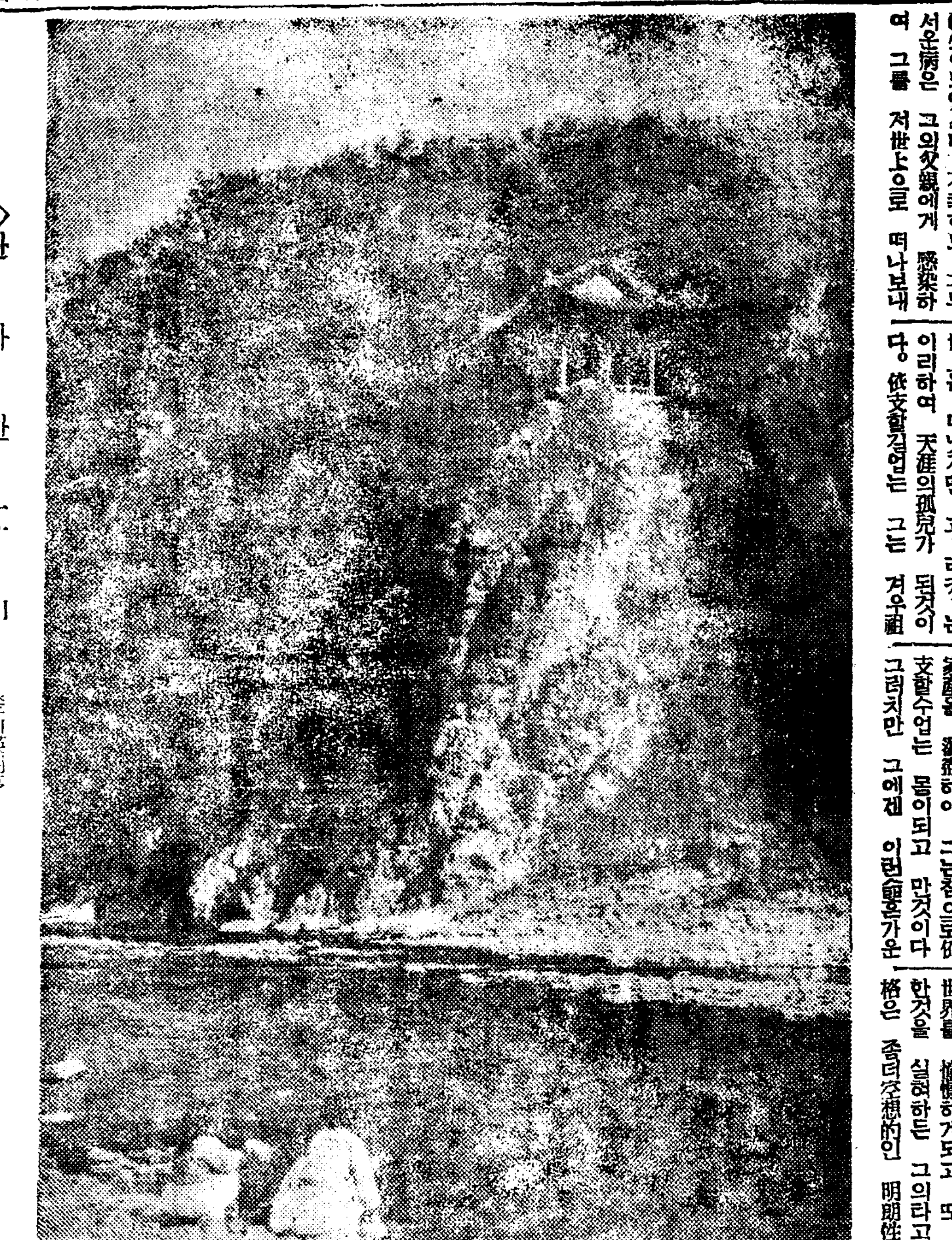
漢詩

綠陰 押庚 桐岡 考選

佳作五之二

大阪 方秉準

江南四月雨初晴
萬綠成陰始聽鶯
昨看疎疎斜野路
今來密密繞山城
能留醉客移時睡
自有涼風盡日清
佳景堪詩又堪畫
勝於花塢一春情



◇한……가……한……江……山 —楚山臨湖亭—

人類의幸福뺏는 癩病이란病

(一) 李鶴松

南鮮地方에가면 풍(風)이라기도하고 或은문둥이라기도하는病이만습니다 이것을醫學에서 癩病이라부룹니다 또요사이는 外國語를그대로『레프라』라는 말도만히씁니다 病에는 우리人類의 幸福을 빼앗는病이 만습니다 結核이나 花柳病가튼것은 우리의게 가장貴한生命을 빼아사 숨然幸福云云할 餘地도업게하는病도잇거니와 이와反對로 壽命은 오래支持케하면서 이世上에서 누릴幸福의 全部를빼사가는病도잇습니다 그中에 第一甚한것이 癩病일것이외다 癩病에한번걸니면 輕하거나 重하거나그사람은 다른사람들과 가티社會生活을하지못하게됩니다 人力으로끈키어려운 骨肉의情까지 끈허버리는 病이올시다 그럿기때문에癩病에 걸니면 이世上에서普通사람이 거러갈길은 다간사람이됩니다 다시말하면 그사람은이世上막다른 골목까지간것이올시다 더갈길이 업습니다 俗言에 窮則通이라하엿스나 이窮은通할수업는 窮이외다 이에서더처참함이 어데잇스리요 갈길이잇다면 慈悲한神의 품속으로通한길이잇슬뿐이외다『父母와同生이버리는 우리를 몸소어르만저주시는 하나님云云』의 癩病患者의 눈물섯긴 祈禱를 드를때에 듯는사람으로 하여금 全幅의同情을 기우리지 안흘수업게합니다 이病이 당장에生命은 빼앗는病은아니나다 이러케 世上사람들게 무서운 病으로 認定되는 理由는 그病에 걸니면 外貌가 大端히 추악하고 또 傳染될수 잇는 그우에完全한 治療方法이 업는 病인까닭이외다

그러면 이病은 엇더케생기나 (原因)

이病은聖書 史記 옛날醫書가운데서 만히보게됩니다 그럼으로 이病은相當히긴歷史를 가지고 잇습니다 古代支那에서는이病을 癘이라기도하고 天刑病이라기도하엿습니다 이病을하날이罰로주는 病으로生覺하는時代도잇섯습니다 그러나 漢方에서이병이 왜생기는지를 알기爲하여 여러가지로 힘쓴形跡이 잇습니다

或은 風이 血脈에들어가서 생긴다던가 或은 單純히 풍이들어가서 생기는것이아니라 風이 血脈에들어가서 벌레(虫)을 생기게하며 그버레가 五臟을먹는다 이病이 生긴다고도 하엿습니다 또엇던記錄에는 귀지네(鰓)업는(魚)고기를 먹으면생긴다고도하엿고 술에醉하여 집밧게서 露宿을하면 이病이 發生한다고도 하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病은 傳染할수잇는病인것도 記錄하여잇습니다。이것은 勿論漢醫學의 草昧한 時代의 記錄이나 只今이것은 善意로 解釋하면 그럴듯한것도 잇습니다。

西洋에서는 十三世紀頃부터이病은 傳染되는 病인것을알엇으나 十九世紀前半에이르러 遺傳說을 主張한사람도잇섯습니다 이러케이病原因에對하여 여러가지說이 紛紛하여 오래동안깜깜한迷宮속을 지나왓스나 一八七一年에이르러 細菌學者「한센」氏의손에서 비로소이迷宮을 征服할端緖을 엇게되엿습니다 다시말하면 『한센』氏가 엇던細菌을發見하엿는데 그細菌은 그後『나이세루』等 여러學者가 癩病組織속에잇는것을 證明하게되엿습니다 이때부터癩病은 그病原인癩菌으로因하여 생기는病이며 同時에 傳染할수잇는 病인것을 알게되엿습니다 實로『한센』『나이세루』等 諸氏는 癩病의開拓者입니다 敬意를表하여 마지안습니다

이러케되여 遺傳을 全然否認할수는 업스나 遺傳보다도 傳染이有力한것을 世上에 알니게되엿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해나남은것은 그菌이 엇더한 經路를지나 傳染이되나하는 問題입니다 이에 明確한 對答을줄만한 實驗的根據가 만치는안습니다 眼結膜、鼻粘膜에 移植하면 癩病이 發生하는것을 본 實驗도잇고 또 直接死刑囚의 皮膚에 移植하여 癩病이生기게하엿다는 報告도잇습니다 그外에 創傷한자리에 癩病이생긴일이잇는것을 記錄한데가잇습니다 從來 動物實驗으로 傳染시키기 어렵다하여왓스나 最近에이르러 쥐(鼠)를가지고 實驗하여 癩病이 傳染되는것을 본사람이잇습니다 제가臨床的으로調査한바를 보면 이病이 처음에 어느部分에 만히생겨남을 觀察하엿는데 이病은 顔面、팔고비、손가락、발가락같은데 다시 解釋하여말하면 우리몸가운데서 外部에接觸되는機會가 만흔 部分或은外部에 接觸되면 쉽게 傷處가날만한 部分에 만히 生起하는것을 보게됩니다. 接觸되는機會가 만흔 部分이 傷處나기쉬운곳이 恒常 癩菌이 侵入할機會가 만흔것이외다 그럼으로 이事實을 土臺로하여 癩菌은 身體다른 部分으로도 侵入할수잇겟지만 皮膚에 接觸傳染으로도 侵入할수잇다는 暗示를 어들수잇습니다 이것을證左하는 例는 적지안습니다 籠球하다어든傷處에 或은耕作과가튼일을하다가 傷處난데癩病이 생긴것은 때로보게됩니다 제가이것을 發表한後얼마안되여 엇던 熱帶地方學者는 제말과가티 癩病이처음으로만히생기는 部分은 身體外側部分인것으로 보와紫外光線을 만히包含한日光이 그部分을 도로혀弱하게하며 癩菌의侵入을 접게하는것이 아닌가말하엿습니다 如何는確實히말할 根據는아직 엇지못하엿스나 疾病은 接觸으로도 傳染될수잇는것을 暗示하는事實을만히 보게됩니다

몸가운데 侵入한 癩菌은 皮膚血液、神經、內臟等에 들어가서病을 이르킬수 잇습니다。婦人에게는 卵巢나 子宮에도 이菌이들어가잇는것을 發見한사람이잇습니다。그럼으로 白帶下가 흐르게되는일도 잇습니다。더욱히滋味잇는것은 제가年前에 調査하여 보왓는데 이病이 생긴女子는 月經이 大端히 不順하고月經初潮가 大端히 느저집니다普通朝鮮女子에게는 初潮가十五歲前後해서 만히오는데癩病患者에서는 十七歲以後가만습니다

懊惱의詩人 하이네研究

(八) 徐丙珏

『佛蘭西畵家』는 一八三一年의巴里사롱—美術展覽會—의 報告로서 佛蘭西繪畵에 對한批評을 詳說하고 藝術과時代精神의 不可分離의 相關關係를 力說한論文이다

『佛蘭西의舞臺에對하야』는 舞臺와 演劇에對한 解說보다도社會情勢의 精密한 敍述을主로하고 獨佛兩國民의 比較와 展望이 論文의主旨이다

『浪漫派』는 一八三三—一八三六年까지에 著作된論文으로하이네의 論稿中의 最大傑作으로當時獨逸文學의鳥瞰圖다 獨逸의作家를 個人的으로分析하야 細密하게 批評하얏다。

『獨逸의 宗敎及哲學의歷史에對하야』는 一八三四年에 發表된 루테ㄹ(M. Luther)의 宗敎改革의 功績禮讚論과 칸트(I. Kant)以後의 獨逸哲學史의 論述이다

一八三四年十月 偶然한機緣으로 靴商을 女店員미라ー(C. Eu-Mirat)와交際를 始作한것이 하이네가 마틸드(Mathilde)—미라ー의愛稱—와의生活은 愛慾에로뭑하고 非理性的인곳에 官能的女子를 愛好하는 性癖을가진 하이네는 더한층 愛着을늣기엇다。浪費와 情慾도 因하야 家政은 紊亂하야지고 하이네의 事業에 無理解하야 不便이不少하얏스나 單只肉慾을 契로 兩人의 關係는繼續되어 一八三五年五月頃부터 아파ー트에서 同棲하기 始作하얏다。

法律上非公式의夫婦生活을七、八年間하다가 마틸드의身上을保障하기爲하야 一八四一年八月三十一日에 舊敎敎會에서結婚式을擧行하얏다。官能的享樂을中心으로한夫婦生活의日常은 精神的衝突이頻繁하야 苦痛이不少하얏스나 마틸드에對한愛情은 漸漸熾烈하야지고 自己死後의마틸드의 生活資金까지 生前에準備하야두어서 하이네의死後에도 마틸드는 生活上의苦痛은밧지안햇다。마틸드는 一八八三年二月十七日 하이네의二十七周忌日에 歿한것도 偶然의符合이거니와 하이네의 遺言에依하야 하이네의 墓에 合葬하얏다。

一八三五年以後 獨逸聯邦議會에서 하이네의 旣往과 將來의著作出版을 禁止하야 印稅의收入이 杜絶되엇고 叔父자로몬과의 關係가 險惡化하야 年金補助가 一時中絶되어 浪費와 華美를즐기는 마틸드와의 生活을維持하기에 無限한 苦痛을 바든때에 佛蘭西 政府에서 年金을 밧게되어 比較的 安定을 엇게되엇다。그러나 年金給付로 因하야 그代償으로 文筆을팔엇다는 推測으로『佛蘭西의傭兵』이란 陋名을 쓰게되엇다 그러나 獨逸人으로서佛蘭西政府의 年金을受取하엿다고 非難하기前에 文人으로서 唯一한生途인 著書出版을 禁止한 獨逸政府의 態度를攻擊하는것이 問題를解決하는데의 根本的處置일것이다。詩人으로서는 停滯期에到達한 하이네가 內外의 苦痛과 惡戰苦鬪하야가며 쩌ー나리즘의 分野로의 進出을 企圖하야 新聞雜誌의 刊行을 計畫하얏스나 政府의 不許可로 發賣되고 마럿다.

九、『新詩』
(Die Neue Gedichte)

前述한바와가티 獨逸을 떠나든 前後에는 作詩活動은 停滯되어 一八三一年 渡佛後、四四年에 『新詩』가 出版되기까지의 詩는 貧弱하다。『新詩』에는

『新春』(Neuer Frühling 1828—1831)— 在獨時代의 作品으로 約四十篇
『雜考』(Verschiedene 1832—1839)—約七十篇
『譚詩』(Romanzen)—約二十餘篇
『時事詩』(Zeitgedicht)

等이 包含되어잇스나 量으로나 質로나 노래의冊』과는 比較가 안된다

『新春』(一八二八—三一)

그대가 준 편지
조곰도 두렵지안타
그대는 나를憎惡하며
그대의편지는 길다
十二面에 가득찬
작은 原稿다
서로 離別할사람은
편지를 길게쓰지안커만
(第三十四章)

『抒情中間曲』이나 『歸鄕』과 詩型이라든지 情調가 相通되는點이잇스나 作詩技巧가 一層圓熟하고 嘲笑 諷刺보다도 純眞한 哀調로 人生의虛無를 表現하얏다。

『雜考』(一八三三—三九)

에로틱한『巴里生活의産物』로 하이네의 데카단的生活의記錄이다 妖艶한파리지엔느와의 社交의快樂과倦怠와의直面相이다。

『譚詩』(一八三九—四二)

鄕國獨逸의追憶과 浪漫的詩에 對한懷憬이 流露되어잇다。浪漫的抒情詩人과 社會思想家의 二重人格을가진 하이네는 第二故鄕『巴里』에滿足지못하고 亦是 浪漫的인獨逸을 그리워하얏다。

『時事詩』

戀愛詩에서 차즐수업는 純全한諷刺 嘲笑 憎惡가新新한型으로描寫되어잇서서 하이네의詩의 新方向을表示하얏다。晩年의 大詩集『로만체로』와 相通하는氣分이잇다。

絢爛한 天分의 爭霸戰

第二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會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ー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잘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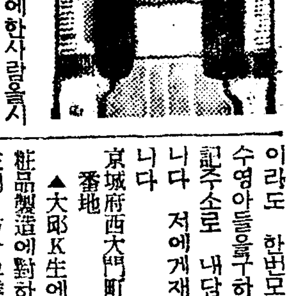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쿠ㄹ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本人은三兄弟中에한사람을시다 어렷슬때에 양친이다도라가섯습니다 부모님을뫼서보지못한것이실로원한될뿐이다 수양부모님이라도 한번모서보기를원하오니 수영아들을구하시는분이기시면左記주소로 내답하시기를 伏望합니다 저에게재산도 千여원잇습니다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二百二十六番地 洪淳一

▲大邱K生에게 貴下가石鹼化粧品製造에對하야 問議한바 小生이 方今그業에從事中이오니一次返信料添附住所通知하시면 仔細히 알리여드리겟나이다
安東縣四番通八丁目 壽商事合名會社 李生

▲香村町에게신 朴容伏君이여 그동안滋味가조흔가 엇저면그다지無情한가 君과相面한지도벌서 數月되엿스니 한번만나주기를원하네그간한번이라도 訪問하야줄 것을番地을몰라서못갓네 君이社交室을본다면 그얼마나반가오가 마음朝鮮日報社交室을보거든 市內古市町四三富士屋으로차저주게
市內古市町 玄東洙

▲出版業하시는여러분! 小生이 "三人童論集"을 出版許可까지 마탓는데 資金이업서서 發刊못합니다 作品은五十頁으로되엿는데 印刷하야 七十頁內外면되겟습니다 著作權을 買入하실분이나 또는出版하실분은 左記로 通知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元山府廣石洞二ノ七 朴暎洞

▲一、慶南密陽邑內 讀者에게 明治四十四年陰五月二十三日은陽曆六月十九日에該當함
二、長箭奧求生에게 大正四年正月十七日은 陽曆三月二日에該當하며 大正六年陰四月四日은 陽五月二十四日 乙卯年戊寅月戊辰日辛亥時 五月二日附 (丁巳年乙巳月丙寅日) 新村生

▲姜夕丘氏에게答함 몸이신劉陽鋼氏는 나의故鄕親知이온데지금咸北明川郡下加面花臺市에 在住하는데 讀書硏究에沒頭中 詳細한消息을아시려면 下記住所로 차저주시오
市內花洞町九〇番地 崔利鎬

▲엇던분아래과목한 新聞小說 오려두신분이게시면 보내주시요 新東亞三月號를드리겟습니다 顧하시는분은 社交室紙上으로 住所까지알리면 곳보내들이겟습니다 李無影作 먼동이틀때 自一回至十四回 東亞日報昨年八月 沈熏作 常綠樹(小題그리운名節)一回分 東亞日報昨年十一月下旬
順安小說鬼集生

▲漫畫을初步로부터 硏究하고자하는者는 本人이終了한 日本漫畫硏究會編纂(漫畫家養成講義錄)과 參考書籍等讓渡하오니左記處로通知를바람
(京城府鈴町百六 羅元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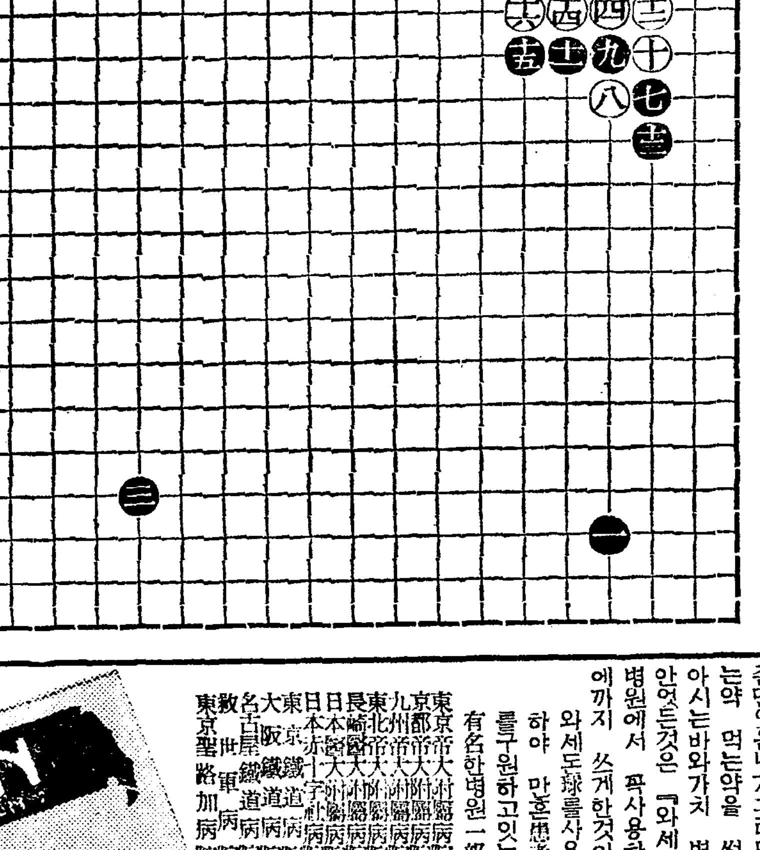
圍碁對局譜

—1—

白 丁奎春
黑先 柳鎭河

本社主催

一	●	丁의十七
二	○	巳의四
三	●	辰의十六
四	○	丁의五
五	●	丁의三
六	○	庚의三
七	●	丙의七
八	○	丁의七
九	●	丁의六
一〇	○	丙의六
一一	●	戊의六
一二	○	丙의五
一三	●	丙의八
一四	○	戊의五
一五	●	己의六
一六	○	己의五



聚極文氏評曰

此回는 前回繼續하야 互先決勝이므로 善戰勵精하니 觀光滋味가 頗有緊張될까하노라 黑丁의十七 辰의十六과 白己의四 丁의五는 地盤設定의 對應策을 講究함이요 黑丁의三을 白이庚의三으로 應함은 左右進退할 意圖를 包含하고 黑丙의七은 丁의三黑呼應하는 意味가 潛在함을 自度하노라

『대하증』이잇스면 아해를못낫케됩니다

V—6

부인병에걸니면 반듯이 대하증이 생기게되나니중환이되시기전에권위잇는 대학병원에서 만흔환자를 구원하고잇는부인병약「와세돈球」로 곳치시면 자택에서도 병원치료와똑가튼치료가되야곳낫습니다

땀배오르는 온몸대에 몸이냉하고 아래배가 거북하며 대하증(냉증)이 내려서 고통과번민으로 쓰라린 세월을 보내시는분이 얼마나만습니가!

흔이 녀자면 보통 냉증이잇거나하시고 무관심히 지나시는분이 만흐나 사실에 잇서서는 부인병때문에 그런것임으로 하로 이를 날이갈수록 병세는더욱 심하게되야 만성고질이 되고마는것입니다

더구나 몸소라칠만큼 악취가 나게되며 살결이 거칠어지고 화색이업서질뿐만아니라 녀성의 매력과애교가업서저서아모리두려웟든 부부애정도 나날히살어지게되는수가 얼마나만습니까

그뿐만아니라 늘근통과 현긔증이나며 월경이 고르지 못하고 월경때면 몸시고통을늣기게되야 눕게됩니다

또한아래배와 허리가 쑤시고 압흐며 땅기다가는 대하증이더욱나오게되는것이니 이상과가튼 증세가잇거든 반듯이 부인병때문에 그러줄을깨달으시사 속히 병세를 살피시와 속히전문의사가 추천하는 신용잇는 부인병약으로 곳쳐야됩니다

부인병은 부부생활하시는 분은 물론이요 처녀시대에도 걸니는것이니대부분은 병균이 국부속에도들어가서 발병하야 이상에 말삼드린바와가튼 증세를 깨닷게하여줍니다

그러므로 국부가붓거나 쑤시거나 압흐고가려우며 또한오줌이자저지고 누어도 다나온것갓지안코 더구나 오줌눌때에는 스리고압흔수가잇스니이런때에는반듯이대하증이흠으로 그런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흠점이난곳에서진물과 고름이 흘으든것갓흔것이니 이것 대소리지안케생각할수잇겟습니가

더구나 이런진물(대하증)속에는 독이잇스니 몸전신에 해룹끼칠뿐만아니라『아해』를 못배게만드는 작용을 하고잇습니다

그럼으로 비참한 불상사를일으키기전에 집에서라도 속히고칠수는 업슴니가

병원에 못가시는분이라도 집에서 똑가튼 치료가되야 부인병이곳낫는『와세돈球』

지금까지에는 흔이 부인명치료에 먹는약‖탕약, 가루약, 물약환약등을써오섯스나 자궁속에병균이들어가서 생긴부인병치료에 아모리 약을퍼붓듯이먹어도 직접그곳의 병화근의뿌리가 빠질이차가 잇겟습니가!

또한 의학상으로 직접넛는약이유효하나 지금까지에는 우수한약효를가진것이적고 더구나 약한개로 몃칠식쓰게하든가 대하물만빨어드리게하야 오히려병세를 심하게하는수가잇고 질내에서 잘녹지를안코 찍걱이가나오며 거문약물이나와서 속옷을엽피게하야 실증을나게하는수가좀만엇읍니다 그러므로 재래의넛는약 먹는약을 써보신분은 잘아시는바와가치 병세가 낫지를 안엇든것은『와세돈球』처럼 대병원에서 픡사용하든것이 민간에까지 쓰게한것이 하나도업는 사실로도 밋습니다

와세돈球를사용하야 만흔患者를구원하고잇는 有名한병원一部

東京帝大附屬病院
京都帝大附屬病院
九州帝大附屬病院
東北帝大附屬病院
長崎醫大附屬病院
日本醫大附屬病院
日本赤十字社病院
東京鐵道病院
大阪鐵道病院
名古屋鐵道病院
救世軍病院
東京聖路加病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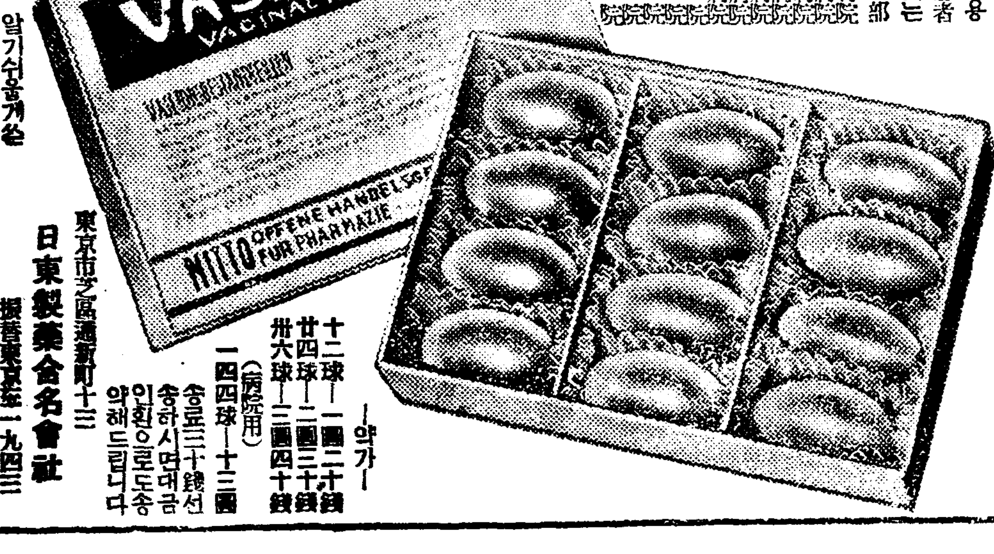
와세돈球는『미라』가튼 깨끗한 색이도는약으로 한개를 국부에넛코 주무시면 조곰도 불쾌한 감이 업시 곳 녹아버려서 약기운은 집접환부에작용하고 몸전신에 퍼저서 모든 부인병의증세를 곳 낫게하여줍니다

그러므로 속히 병고에서버서나실여러분은 조곰도주저마시고 와세돈球로 치료하시사 근치의 깃뿜을 어더주십시요

……◇……

조선국문으로 병세를 통지하시면부인병자택치료서를 거저드리고 최선의방법을 알리워드리며 본보통지우대로 송료삽십전선송하시는분에게는 남어지 송료는부담하야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어느가정에도꼭한권식필요한 家庭衛生寶鑑을조선국문으로 알기쉽게쓴 醫學博士 河合駿策先生著의『女性의新生理學』을 要求하시는대로 거저드립니다



—약가—
十二球—一圓二十錢
廿四球—二圓三十錢
卌六球—三圓四十錢
(病院用)
一四四球—十三圓
송료三十錢선송하시면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一九四三三
京城 [illegible]、本町藥局
釜山 大黑商會 海堂
전도약방에서판매합니다

連載野談 (四六)

布衾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이잔만은사양(六)

김소년이 두손을 맞의고 단정이서서 그의 설명 하는 말을 들을새 그말이 구절、구절 핍절하야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뼈를 찌르는듯 원통이 저리고 갑갑된 눈물이 금할수업시 흐른다。

그는 잠간 말끗을 멈추고잇다가 다시 말끗을 이어서

『또 들어봐!。궁예(弓裔)의용맹은 어떠하얏스며 진헌(甄萱)의 지혜는 어떠햇서。그런용맹、그런 지혜로써 능히 큰공을 세우지못한것은 한편으로는 힘써야할 나라의 세보배를 힘쓰지 아니하얏고도 한편으로는 헝드려지면 못쓰는 그정신이 상하를 물론하고 헝드려진것。더더구나 그들이 군사를 쓰는 때에 병법에서 긔하는 다섯 가지를 모두 범한까닭。누구는 말하기를 운수라 하지만은 운수가 무슨 운수야。천리에 순응하면 흥하고 천리에 어긋나면 망하는게지。

대저 천리에 순응한다는것은 다른게아니라 반드시 행할일을 행하는것이오 천리를 거실린다는것은 하지안할 일을 행하는것이야。허허。궁예의 용맹과 진헌의 지혜로도 망햇거늘 지금 이나라에 그만한용맹、그만한지혜를 가진사람이 누구야?。』

『또드러봐!。장수가 되려면 장수되는 도(道)를 알고 그것을 직혀야해。룡도(龍韜)라는 병서에 장수되는 도를말하얏스되 장수가 되려는자는 다섯가지 직힐것과 열가지버릴것이잇다고햇서。그 다섯가지라는것은 용맹、지혜、어질것、미듬、충성이니 이것을 오재(五材)라고해。또한 그열가지 버릴것이라는것은 용한것、조급한것、재물을 탐내는것、참을성이업는것、겁이 만흔것、사람을 밋지안는것、사람을 사랑하지 안는것、느린것、방자스러운것、남을 의뢰하는것이니 이것을 십과(十過)라고해。

그럼으로 장수가 되려는자는 반드시 이두가지에 다 힘을 써야해。즉 오재를 기르기에힘쓰는것으로물론、십과를 버리기에도 힘써야해。가만히 생각해봐!이오재와、십과에 대해서 힘을 얼마나 썻는가를。』

『또들어봐!。방금 몽고(蒙古)에 성길사한(成吉思汗)이라는 사람이 생긴이후 동방(東方)은 며 말할것업고 원천하의 큰 판국이 어지러운 운수에 잡혓서。그불똥이 이나라에도튀여올는지 알수업지。그불똥이 역시 이나라의 적은 운수에 판게가되것이니까。』

『또들어봐!。이나라는 방금안으로는 세보배에 대한 정성이 쇠하얏고 백성의 정신이 호려진때。밖그로는 거란、녀진、몽고등 노략질의 손길이 버러진이때。네가 장차 장수의 몸이 되여서 이나라의 간성이되겟다 생각한것은 매우긔특한뜻。또한 항상 일이만흔 서도의 산천지리를 잘 살피엿다가 뒷날에 리용하겟다고 나선뜻도 긔특한뜻。특히 선왕(先王)과 선현(先賢)의 끼친터에 이르러서는 옛일을 공경하는것도 긔특한뜻。또한 묘향산에 갓슬때 삼백륙십암자에 가서 네가 먹은 큰뜻이 변함이업게해달라고 불전에 분향하든뜻도 긔특한뜻이야。』

『또들어봐!、그러나 너는 네재조에 넘고 네가 먹은뜻에 교만이 생겻서。그래서 병서에 이른바 그 오귀(五危)와 십과(十過)에 범하기 쉽게 되엇서。네가 그러한 교만이 잇지만은 방금 용맹으로는 거란의 명장 아아올노(鴉兒兀奴)를 당치못할것。지혜로는 몽고의명장 지한(漢哈)을 짝할수가업서。그런데 아아올노는 용맹은 만호나 지혜가 적고 진한은 지혜는 넉넉하나 용맹이 부족한바 면구나 진한은 술을 조화하는 풍류성(風流性)이잇는사람。그러나 그두사람은 당대명장。어째든 이두명장을 네가 만나는때가 잇슬는지 모르는일。만일 만나서 그두명장을 모두 네압헤 꿀리려하면 너는 악가 설명한바 장수의 도를 미리 닥지아니 하고서는 능치못할일。그러커니、네가 네마음을 질러봐!。』

하며 그는 하날에서 번쩍거리는 새벽 별들을 바라본다。

『이제 스승의 밝으신 교훈으로 헤호려든 정신이 오림무중을 헤처나온듯 이몸을사랑하사 먹은뜻을 일우도록 거두워 주소서。』

하고 김소년은 다시 네번 절하고 엎드린다。

『그것은 네정성 나는 다만네가먹은뜻을 귀특히 생각한까닭에 한번 맛나려든것뿐。』

『아모조록 슬하에 거두어주소서。그러하온데 스승의 존호를 모르는 제자가 업사옵니』

『응응。그것은 뒷날에 알려니와 위선 희구룡을 보거던나로 짐작해 두어。』

하고 그는 또다시 바라보든 별들을 바라보며 웃는다。

主催 野談同好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端午노리의舌戰三合
・演士……庾秋岡●黃材景●申鼎言

野談과漫談의밤

時日 六月二十三日밤八時（陰曆端午날）
會費 普通八十錢、學生六十錢（朝鮮日報讀者半額）
場所 公會堂

나오신일 잇습니까?

처음으로 영화계에 나와서요、자주 뵙게되면구면이되겟지만요…아모조록 사랑해주십시요 스타ー의 인끼란 팬에게 달린것은 벌서부터 알고잇서요『…엘리너!화이트니양 파라마운트社所屬』

演藝娛樂

映畵企業의將來 (七)

崔章

映畵企業과토ー키

現在朝鮮의 輸移入映畵에잇서 無聲映畵에比하야 發聲映畵가急速度로增加하고잇는狀況은 上記한바와갓거니와 이發聲映畵의隆昌은 다른方面으로부터 朝鮮映畵企業의發展을促進하고잇다。

過去無聲映畵가全盛하든時代에는 映畵가萬國共通의感覺으로볼수잇는 國際的藝術이라고評論되여왓섯스나 近來發聲映畵가發生하야 一國의言語 音樂等이 映畵의重要한 部分을占하게되면서부터 이映畵가 가진重大한要素이엿든 國際性은 完全히拋棄되고 말엇다。그리고『映畵의 國際性의 喪失은 그自身보담 도로혀 그로서誘起되는 國際市場의 喪失로서 映畵企業에 重大한 關係를 갓는다。』(前揭「映畵와資本主義」)

映畵의 國際性의喪失과 國民性의表現은 다음에引用한 어느 映畵評論家(『改造』昭十年三月號)의 言句에서도 能히推測할수잇다。

『이世上에 映畵처럼 가장露骨的이도록一見하야 발서그것을 生産한나라의마ー크를 사람에게感知케하는 藝術은업는것이다。例를들면 獨逸의撮影所에서巴里를背景으로한映畵를製作하면 奇妙한것박게되지 안코 갈포니야의스타디오에서 만든 日本의 形態는 우리들로하여금苦笑케한다。』

發聲映畵에잇서서의 이民族語의 問題는 先進映畵製作者들에게 相當한困難을주고잇스며 그에對한防策을 여러가지로 講考하고잇스나 아즉까지別로成功한例가업스며 이問題에 限하야는 그네들의 엇더한 技術로서도永久히 解決되지못할것이다。現在 우리들이 經驗하고 잇는 例로서所謂 日本語版이라는 外國映畵가잇다。이런作品의成果는 내가 여기에 여러가지煩雜한說明을할것도업시 左記한評論이 그完全한失敗를喝破하고잇다。

『觀客은 말을들으는外國토ー키ー를보지안는다。日本語版에反對하는것은 一部의批判家다。以後의外國映畵는 모다日本語版化하지안하면아니된다。이러한當事者의確信에도 不拘하고 大衆은日本語版을支持하지안하엿다。日本語版을上映하는館의 大部分은 最低의 記錄을내엿다』(第一書房發行 一九三六年『映畵年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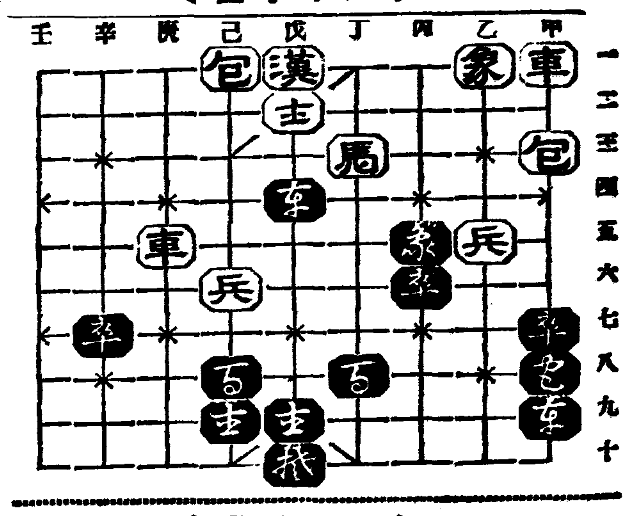
이리하야 現今에는 이러한日本語版外國映畵는 遞減하엿스나 이대신에 直接그나라의俳優를雇傭하야 그나라의風景을 背景으로 映畵를製作하려는 努力이생겻다。그러나 이러한企圖도 製作費用만이 過多하여지고 實際上의効果는 大概失敗한듯하다。각가운實例로 崔承喜夫人의『半島의舞姬』에對한 日本內地의映畵評論家들의 批判과 直接觀賞한朝鮮人들의 印象을 綜合하여본다면 이러한手段亦是만흔 期待를가질수업다。

이리하야 今後製作되는 朝鮮映畵에는 朝鮮의自然을 그背景으로하여야할것은 勿論이거니와 朝鮮人의監督이 絶對로必要하며 主演者로부터 엑스트라까지 그全部가 朝鮮人이아니면 아니된다는것은 이方面의評論家 技術者들의 合致된理論이다。이러한 朝鮮映畵製作의 特殊性은 朝鮮에잇서서의 映畵企業에 外地資本의 投下를不可能하게하며 朝鮮人獨自의 企業으로서 將來의 發展을 囑望할수잇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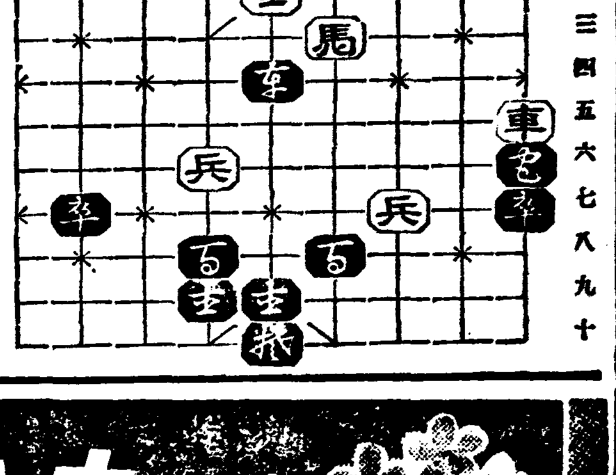
漢 李在鳳 楚先手 金于石

◀六十手圖▶



◀七十手圖▶

甲九●—乙九
乙五兵—丙五打象
乙九●—乙五
丙五兵—丙六打卒
乙三●—甲三打包
甲一車—甲三打車
甲八●—甲三打車
庚五車—甲五
甲三●—甲六
丙六兵—丙七



라듸오

二十二日 (月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꼿을갈』 一景

—配役—
順伊 姜玉順
壽男(그의동생) 韓福童
鳳姬(동무) 尹瑗子
其他

—鄭英徹作— 新興童人會
指揮 鄭英徹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〇〇分 產業ニユース 經濟解說
◇同八時 普專敎授 洪性夏
◇同八時 農村講座(一) 第二高普 金雄珏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중모리 二、併唱 (가)短歌 어화靑春 (나)唱劇調 沈淸歌 成錦花 鼓手 池龍九
◇同九時 拳鬪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東京對朝鮮

第一放送
◇午後六時 에코디온과하와이안기타ー獨奏 安永明朗 鶴田廣
◇同六時二五分 (東)基礎英語講座(三十) 飄谷榮
◇同八時 (東)獨唱과管絃樂(通俗名曲定期演奏第六回) 獨唱 長門美保 日本放送交響樂團

二十三日 (火曜)

◇午後〇時五分 맨돌린合奏
一、오리엔탈마ー취…마스켈리作曲 二、貴여운幻影…마초키作曲 三、圓舞曲黃昏…살도리作曲 四、메난도라스의춤…샤우作曲
만돌리나・데・서울 指揮 李興培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녀름의化粧』 金芝蘭
◇同六時三〇分 唱歌 一、꾀꼬리…할라ー作曲 二、소곱쟁이…尹克榮作曲 三、너왜갓느냐…柳基興作曲 四、어머님뵈오리…파스타ー作曲 五、月桂꼿…슈ー벨트作曲 六、옵바생각…朴泰俊作曲 七、싼타루치아…伊太利民謠
向上女子實業學校生徒 伴奏 朴景嬉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金泰洽
◇同八時 農村講座(二) 第二高普 金雄珪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鞦韆歌 金昌龍
◇同九時 山念佛外 一、山念佛 二、寧邊歌 三、긴난봉가 四、자진난봉가 五、방아타령 六、양산도 李眞鳳 金玉葉 鼓手 丁元燮
◇同九時三〇分 놀양外 一、놀양 二、앞산타령 三、뒷산타령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金泰運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 (大) 오페라코믹
◇同六時 (名) 勇士物語
◇同六時二五分 (東) 靑年時間
◇同七時三〇分 (廣) 講演
◇同八時 (前) 俚謠
◇同八時一〇分 (大) 俚謠
◇同八時二〇分 만도린獨奏
◇同八時五〇分 浪花節

『野談과漫談의밤』(六月二十三日밤公會堂에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一枚一人
會費 普通 八十錢을 四十錢으로 學生 六十錢을 三十錢으로

若さを護り美を育てる秘訣

滲透力이强하고 榮養豊富한 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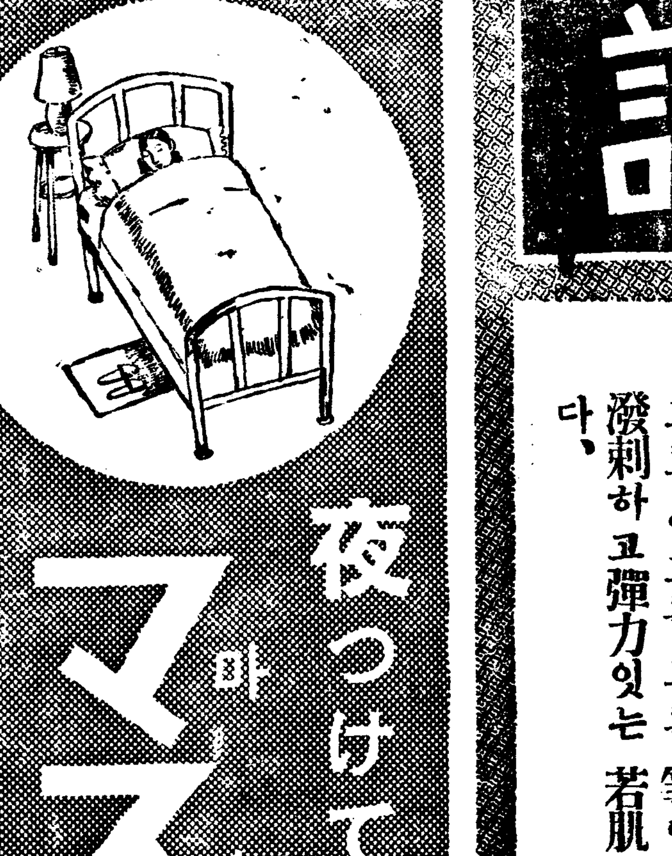
優秀한바늬싱크림은 바른氣分이산듯하야 끈적이지안코 刺戟이 업는것이아니면 안니됩니다、이것은 原料가 精選되여 鹼化의程度가 가장適當한證據로서 鹼化不充分의境遇와原料가粗雜할때等은 끈적이여서不快할뿐만아니라 皮膚障害의原因이되기쉽습니다、마스타ー바늬싱은精選된原料를使用하야 最適의鹼化狀態로만들엇스므로 발르면훌융하고爽快한氣分이나고 滲透力이强하고榮養豊富한 獨逸特許의基本美肌劑 스킨호르몬性라세랑이配合되여잇습니다、라세랑은迅速히皮下깁히滲透하야 皮膚細胞에榮養과活力을賦與하야 老廢物을排泄하는힘이特히强하므로 살결은恒常바른生理的狀態에保護되여 新陳代謝도調整되므로 여드름 부름、等이무섭지안흔潑剌하고彈力잇는 若肌를保持합니다、

美容의基礎는 살결부터

어떤化粧도살결이整齊되지안흐면 効果가업스므로 살결을아름답게하는平常의注意가必要합니다、먼저 充分히睡眠할것 淸水蔬菜를될수록만히攝取하야 血液淸淨을保持할것、皮膚面을淸潔히할것等은 꼭必要합니다、皮膚는淸潔히하고、榮養을놉히면自然의治癒力이强해지므로 여드름、부름等의皮膚障害도적게됩니다、이皮膚面의淸潔과 榮養供給에는 마스타ー콜드크림이 가장優秀합니다、▲淸淨力이强하고適當한粘稠度 ▲滲透力이豐富하고 完全한乳化狀態▲日光에依하야美肌効果가卓越한 비타민D로變化하야特殊成分과基本美肌라세랑을 多量으로配劑……等性能効果正히 第一品입니다。

콜드의使用法

就寢前에마스타ー콜드크림을顔、목에발르고 주ー게로 씨스면白粉과脂肪、때가깨끗이除去됩니다、다음에한번더 크림을발르고가볍게圓을그리는것가티 맛사ー지하야 기름끼잇는곳을씻고 살결이 거치신분은좀크림이 남을정도로발러서 그대로就寢하시면 아침은 潑剌하고 彈力잇는若肌로되랍니다。



夜つけて朝の若肌!
マスターコールドクリーム (마스타ー콜드크림)

鰮魚群의 襲來로 獨津港俄然活況

初日의 陸揚高五百樽突破로 憂愁中의 漁民雀躍

【淸津】 온어(鰮)군이 한달이나 지난달까지 아모형적도 업든 동해안일대에는 당업자의 리산까지 늘어든 수백로동자의 초조 전하든 작금에 십구일 출어중이든 어선수척은 공전의 온어습래를 전하게되여 이십일 하로에는 오촌면남석진(梧村面南夕津)소속어선 팔척이 오백통(樽)의 대풍획을 처음으로 보게되엿다는데 오래동안 한산하든 온유비제조 각공장에도 경은면과 와 로동자의 그림자가 보이게 되엿다한다

▲美林 [illegible] ▲順南 [illegible] ▲殷山 [illegible] ▲長水院 [illegible] ▲星日 [illegible] ▲靑龍 [illegible] ▲慈川 [illegible] 合計 [illegible]

佛像破壞事件 首謀一名送局

【安邊】 —귀보—함남 안변 석왕사(安邊釋王寺)의 말사로 위익면 하주천리(衛益面下舟川里)에잇는 성도암(成道庵)에서는 지난 음력사월팔일에 석존제(釋尊祭)를 거행하고 잇든중 그동리 예사는 청년수십명이 작당, 북, 장구 등 유흥긔구를 가지고 몰여와서 절에서 유흥을하려고하다가 그절주지 리광하(李光夏)씨에게 제지를 당하고나서는 딴곳으로가서 술마시고 장구치고 한참동안 질탕히 놀고잇다가 다시 절을 차저와서 가지고잇든 술을 퍼부으면서 제물(祭物)등을 모조리 파괴식히든데 부처님의 빵 게시판(揭示板)등을 응감겨서 도라안게 맨든 사건은 저간안변경찰서에서 관계자 십오명을 인치식히고 엄중한취조를진행중이더니 리자윤(李子允)외삼명은 훈계방면 식히고 수모자 강손용(姜孫龍)(三)한사람만 지난십구일오전구시에 십팔분차에 폭행, 긔물훼기(器物毁棄), 례배(禮拜)에관한죄등 세가지죄명을 부쳐 일건서류와가티 함흥지방법원원산지청검사분국(元山支廳檢事分局)으로 송치하엿다고 한다

平南十一水組區內 移秧僅五割一分

—六月二十日現在—

【平壤】 물긔근으로 울고잇는평남농촌에서는 언제나 호호천비가 나릴가하여 무심한 하늘을 쳐다보고잇든바 지난십구일밤부터 비가나리기 시작하여 우울에 잠기엇든 농촌에서는 우울이 일시에 해소될듯이 환희의 소래를발햇다 그러나 이십일아침에 비는멋고말어 그러케도기다리든비는 실녀미리내외에 그만끄처버렷다 칠년대한때에 무일불우라구해지만 번수로는 당이야말로 새발의피에 불과한안타까운 결과를 가저 올뿐이다 당히 여러번비가 나리기는나렷스나 사백「미리」의 우량을 기다리고 잇는 평남농촌으로서는 평남 십일개수리조합의 이앙상황을 드려보면 이십일현재로필한곳이 겨우세곳 남은여덜조합은 실로 한심한바만허 갈수록비관적 보고가 전할뿐이며 평안수리조합 강서(江西)수리조합은 발서 저수지의 생명은 일주일미만 저수지바닥이 나타나 저수지에기르든 고기(魚)를 손으로 그냥 잡어내고 잇는터이며 그밧게다른 수리조합저수지 역시 맛찬가지이다

이제 십일수리조합의 이앙상황을 소개하면 얼마나 비관적인것을 알수잇서서 이십일까지에 전체를 통하여 겨우 오할일부를 맛치엇슬뿐이오 남은장소에 묘하 이앙을계속중이나용수의 부족으로 극히 곤난하다고한다

組合名	移秧面積 町步	移秧狀況 町步	比例
▲大同	[illegible]	[illegible]	九割一分
▲江西	[illegible]	[illegible]	八割三分
▲同和	[illegible]	[illegible]	十割
▲平安	[illegible]	[illegible]	三割

出役人夫不足으로 洛江工事에 支障

農繁期와 窮乏으로 堪當못해 出役豫定의 三分之一

【釜山】 경상남도에서는 락동강류역사방공사(洛東江砂防工事)를 계속하기위하야 관계십이개군에 삼십오만삼천여명의 부역을부과하고 사월초순부터 일제히공사에착수하고잇는데 비오는날과기타공사할수업는날수를 제외한다면 매일평균 삼만오천여명식출역하여야 금번도예정공사를 필할수잇슬터인데 사월부터 오월말까지 이개월동안에 예정의삼분지일내외인 이만칠천여명밧게출역하지못해슴으로 동공사에대지장을 초래하게되엇다한다 그런데 그출역불량의리유는 계주민들은 매변각종의 부역에 시달리여서 곤궁을당하고 잇는 현상인데 더구나 농번긔이므로 아무리 강제적부역일지라도 궁고서임할수업서 농사일을 하는 등 달니품파리를 하는등으로 그와가티 잘출역할수업다는 현상이라한다

豐端道路改修

三萬五千圓工費로 出役은凶災民에限해

【咸興】 장진수전회사(長津水電會社)에서는 허천강수전(虛川江)의실시를압두고 풍산、단천(豐山 端川)간의 삼등도로의 일부 인풍산군 안수면하지경리(豐山郡安水面下地境里)로부터 양평리(陽坪里)지내의 약이십오리 동안의도로를 개수하겟다고 십구일함남도 로목과에 인가를신청하야왓는데 공사비는 삼만오천원이며 동지방 흉작민으로 출역케할터이라는데 상당한 문함이 산되리라고 긔대가만타

戶籍僞造事件의 言渡公判延期

【安邊】 년령미만(年齡未滿)또는 변령초과된 아동들을 적령으로 고치여 사긔입학을 식히려고 호적초본을 위조행사한 함남안변군 배화면(安邊郡培花面)면직원 오긔현(吳□□)등 륙명의 언도공판은 함흥지방법원에서 지난 십구일에 개정키로되엿든바 사정에의하야 오는 이십륙일로연기되엿다한다

韓承坤牧師還國

【平壤】 일즉이 평양부내 장로파 산정현(山亭峴)교회 목사로 시무하다가 다시 조선장로회총회선교사로 피임되어 중국산동성(中國山東省)에 조선인 선교사로 파견되엿다가 북미합중국(北米合衆國)에 건너가서 이번가을 신학연구를 하고잇든 한승곤(韓承坤)씨는 이십일오후 남경시오십이분착 노조미로 고향인 평양에 금의환향하엿다한다

러되엿다는데 지난십일 그동안 검사의구형은 다음과가티라고한다 ▲吳□□ 懲役一個年 ▲李□□ 八個月 ▲朴□□ 八個月 ▲金□□ 六個月 ▲張□□ 六個月 ▲沈□□ 六個月

温陽温泉에 一日火災二件

一戶十間全燒

【牙山】 지난십구일 오후사시경에 충남온양온천(溫陽溫泉)윤하영(尹河榮)의 집에서 발화되엿슬 소방조의 노력으로 즉시진화되고 동일오후팔시경에는 동리 문한일(文漢一)의 집에서 발화되엿슬 역시 소방수의 노력으로 동시경에 진화되엿는데 일호 십간이 전소되엿다하며 발화의 원인과 손해는 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兄弟間遺產爭訟 和解로一段落

【咸興】 삼백마장자 고 한치은(韓致殷)씨의 유자형제간에 일 [illegible] (咸川郡下□□□)에서는 전 [illegible] 덕(金□□)(□)은 지난십칠일 오후일시경에 생활난을비관하고 그의집뒤에잇는 소나무에목을매여 자살하엿다한다

[illegible] 유산분배(遺產分配) 청구소송이 제긔되여 그 추이가 전하날드의 주목의초점이 되여잇든바 동문제는 그후합정으로 형제간화해에 노력한결과 실형일에이르러서 청구액의 약사분의일가량을 피고한규돈(韓□□)씨가 그동생한규돈(韓□□)군에게 주기로하고 일단락을 지엿다고한다

朱南地方의 雹禍

被害面積六十萬坪 關係農家三百餘戶

【鏡城】 함북경성군주북면주남지방(朱北面朱南地方)에는 지난십일 오후일시로부터 두시까지 약한시간동안에 주먹가튼 우박(雹)이 퍼부어 밭아긔에잇는농작물은 전멸상태임으로 감자(馬鈴薯)를개식하는등 산간벽지의연맥(燕麥)피해도 그생활의우려된다는데 피해면적과 농가호수는 다음과갓다고한다

	被害面積	戶數
燕麥	[illegible]	[illegible]
馬鈴薯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本報支局後援의 滿洲視察團出發

【水原】 긔보—수원역전외 본보 수원지국후원의 만주국시찰단은 예정과가티 이십이일오후 두시 반 수원발급행렬차로 수원역장 전상곤씨 인솔하에 출발하얏다는데 이번시찰단원은 수원뿐만 아니고 전조선각지에서 다수참가하야 대성황리에출발하얏다

打作부터 한다고 六十老人을 毆打

憤慨한三百餘群衆面에殺到

咸安郡廳員의 脫線

【咸安】 권업을강제로 독려를 기리가을을 독려하려촌으로갓다가 압으로 인식착오된 군청원—보리를다베지안코 타작부터한다고 젊은군청원이 륙십로인을구타하여 면민삼백여명이 면사무소에 쇄도하여 야호성을치며일대소동을 이르켯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지난십칠일에경남함안군청원 김모(金某)(二□)가 동군산인면부곡리(山仁面釜谷里)에 보리가을을 독려하러갓슬때 동리 리귀호(李貴浩)(六□)가 보리타작을하는것을보고 달려가서 웨 보리를 다베지안코 타작을하느냐하며 힐책을하다가 군청원은 로인을구타하기시작하자이 본동민들은 군청원의잘못을말하고 다시면사무소에 동민총동원으로삼백여명이 쇄도하여면장에게질문하는일변 가해자인 김을 포위하고 달려드는것을경찰의제재로 해산케하엿다는데 일반농민들은 군청원의 행동을비난하는동시에 군당국의 경솔한행동을 원망한다고한다

被害者李氏談

대단히 분합니다 보리가을독려하러온것이아니라 무지한농민을 구타하러온것갓습니다 이런일이 어듸잇겟습니까 그런사람을 그냥군청원으로둔다면 아프로 우리농민들은 안심하고 살수업겟습니다 내가마젓다고 분한것보다 그런사람을 사용하는당국이 원망스럽습니다 운운

山仁面長沈氏談

우리면내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여대단히 미안합니다 나는 그날루장리회를마치고 면사무소에 잇섯스니까 들리는말이 군청원이 로인을구타하엿다고 하기에 떨리는 다리와 놀란 마음으로 도로변으로나갓더니 수백명의군중이 면사무소로 달려오기에 가리 들어와서모든책임을 내가질터이니 양해하여달라고 하며 누누히 말하엿더니 도리여 우리가 잘못되엇다하며 군중은 곳해산되엇습니다 운운

解雇廣告

弊社外務員崔□□는本日附로解雇하엿사오니內外諸彦은誤認勿施하시압

昭和十一年六月十八日

平壤府南門通

朝鮮製帽株式會社

暴行한醫師에 懲役二年求刑

【晉州】 강간피고사건의 진주읍금정(晉州邑錦町)제중의원(濟衆醫院)의사 조동엽(曺□□)에관한 제삼회속행공판은 지난십구일오전열시반 진주법원지청 제일호법정에서 이등(伊藤)재판장주심으로 전번과가튼 방청금지리에 개정하엿는데 이번에야 지리하든 심리가 겨우끗나게되어 최회 민(閔)검사로부터 징역이년의구형이 잇슨다음 홍、전、최(洪、全、崔)세변호사의무죄변론이 잇슨후 오후한시반경에 폐정하엿는데 판결언도는 오는 이십륙일이라고한다

生活難으로自殺

【楊市】 평북룡천군양하면수송동

寶城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七月五日

▲場所 寶城郡廳코—트

◇主催 寶城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寶城支局

鳥致院 中朝鮮蹴球大會

▲時日 六月二十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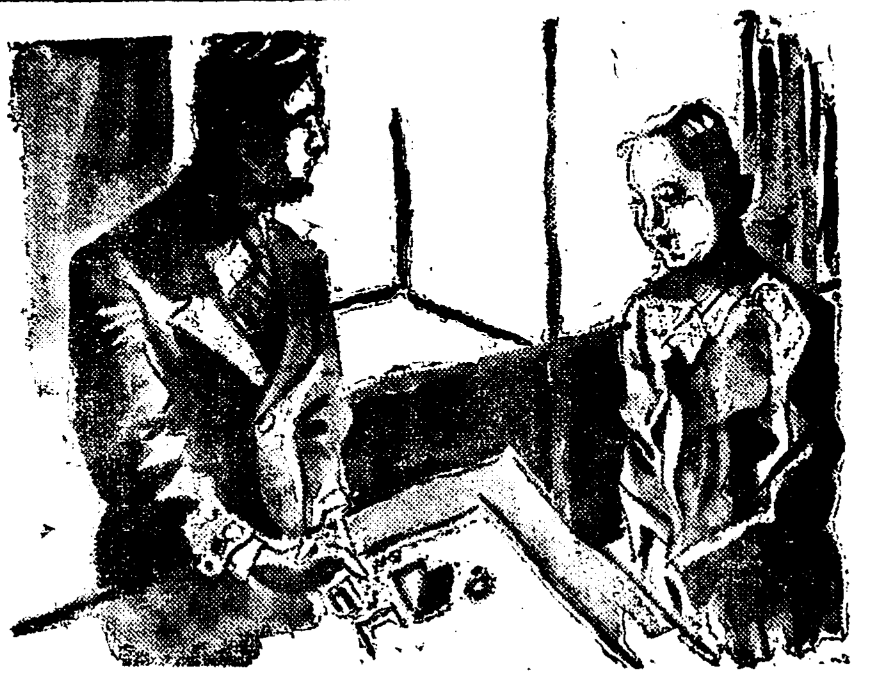
▲場所 鳥致院公設運動場

◇主催 鳥致院蹴球團

◇後援 朝鮮日報外二支局

愛慾의彼岸 【30】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어떠케 오셧서요?」 하는 은주의 말에, 문임은 꿈을 깬드시, 비로소 그 흥정하는 부인네들이 벌서 가버리고 은주가 상인의 평정한 긔계적인 태도를버리고 예사ㅅ사람의 태도로 제 겨테와 섯는것을 깨달앗다.

문임은 무슨, 큰, 부끄러운 일이나 하다가 들킨사람모양으로 낫을 붉혓다. 그리고는 미처 말이 나오지아니하야 다만 한번 우섯다.

「이리 안즈시지오」 하고 은주는 기대는것 업는 둥글 교위하나를 가르첫다.

「괜찬아요」 하고 문임은 겨우 제 사명을 자각하고 은주의 마음을 엿보랴고 애를 쓰면서,

「이러케 늘 혼자 계서요?」 하고 물엇다.

「왜요. 점원 한 사람이 더 잇고 또아이도 하나 잇어요. 그런데 그점원이내환이 중해서 어제 오늘 못 옵니다」 하고 은주는 아모 흥미 업는 드시 대답한다.

「늘 밧부시지오?」 하고 문임은 별로 뜻도 업는 말을 주서댄다.

「무얼요. 또 여름이 되면 손님도 적고 한산하니까요」 하고 은주는 아까 와 고객들이 놓어놋고 간 물건을 채곡채곡 진렬장 안에 집어넛는다 그러면서도 문임이가 무슨 일로 왓는가 하는드시 때때로 문임을 본다.

문임은 은주의 마음을 알수가 업엇다. 은주는 아모일도 업는 사람 가티 태연하엿다. 억지로 뜨러보면 무표정한 비치 잇지 일은듯한 세상에 흥미를 일흔 그것은 은주의 본래의 면목이 아닌가. 그러타고 문임은 이대로 돌아갈수가 업엇다. 혜련에게, 보고할 확실한 재료를 엇지아니하면 아니 된다. 혜련에게 보고 하는것뿐아니라 문임자신의 궁금증을 면하기위하여서라도 은주의 속을 떠보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문임은 기실은주에게 허물업시 말할만한 친분이업다. 혜련과 둘이서 혜련의 집에서 떠러는 상회에서, 맨먼 은주를본 일이잇지마는 문임은 그와 별로 말을하여본 일도업섯다. 그러한 사이에 넘어 여러말을 뭇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엇다 그래서 문임은 손ㅅ가락으로 진렬장유리를 한참이나 가만가만히 두드리다가, 용긔를내어서

「그런데 신색이 조치를 못하서요. 어듸가 편치안흐서요?」 하고 말을 부처다.

은주는 놀라는드시, 또는 듯기실흔드시 힐긋 문임을 돌아보앗다. 문임은 이때에 은주의 눈에 심상치아니한 비치나는것을 보앗다. 「웅 그 아버지가 자사라더니 저 분이로군」 하고 생각하엿다. 겸손박게 친절박게는 아모것도 업는듯하든 상인 은주에게서 위엄을본것이엿다.

은주는 그 번개가티 번뜻나타낫든 위엄을 얼는 거두어감초아버리고, 다시순한 상인이되어서,

「네 무어. 아무러치도 안읍니다」 하고는 모처럼 물어주는 말에 대답이 넘어 초솔한것을 뉘우치는드시, 한번더 문임을 보며,

「어제ㅅ밤 장부를 좀, 정리하노라고 늦잠을 자서 그런게지오」 하고 그 히멀조각과 가티 힌 잇게 생긴, 그러나 열정적인듯한 제얼굴을 한번 들어보다.

「장부정리!」 하고 문임은 한가지 중요한재료를 어든것을 일변 놀라고 일변 깃버하엿다.

21日부터 27日까지

夏服無料クリーニング券付大賣出し

夏服需要期에奉仕 이機會를노치지마시라

●夏服新誂하실분 ●既製服買上하실분에無料구리링그券進呈…
但既製品의特價品은除外키로함

特賣品

背廣三ツ揃	十圓 十五圓 二十圓均一
カシミヤ上衣 白セルズボン組合せ	二十圓均一
縞ズボン	三圓九十錢均一
白セルズボン	四圓九十錢均一
絹レインコート	六圓五十錢均一

▼優良紳士服レデーメード品揃
▼舶來優秀夏服地品揃
▼盛夏服別誂特別奉仕 十五円 廿五円 卅五円 四十円均一

盛夏用最適品 英國製팜—크로스宣傳大奉仕 別誂背廣上下 四十一圓

京城 三中井 四階洋服部

森永ドライミルク

더워지는때에 아무염려업시 제젓대신으로 먹일수잇습니다 品質이우량하고 新鮮한까닭에 귀여운보배—아드님 따님이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森永製品朝鮮販賣會社

D-1

CAS-13

당신의全身을 健康과明朗의 二重奏로 興을돕는 이優良二大삐—루

이삐—루一瓶의榮養價는 鷄卵四個、牛乳三合에匹敵함

アサヒビール (아사히삐—루)

サッポロビール (삿뽀로삐—루)

朝鮮麥酒株式會社

經濟解說

米國三期景氣

②……好況持續豫想

다음에 建築界가 現在까지 이미 昨年에 比하야 顯著히 增進되고 다시 第三·四半期에 잇서 昨年同期에 比하야 二倍가량의 活況을 呈케될것으로 보는點이 잇다 그點에잇서 가장 有望視되는것은 아모래도 住宅의 建築으로 이것은 家賃이 昂騰하는傾向이잇고 一面으로 國民收入이 增加하므로써 앞으로 增加할수가 잇다 또 軍人恩給支拂을 바든 老兵中에는 住宅建築을 志望하는사람이 매우만타 어떠튼 今年第三·四半期의住宅建築契約은 昨年同期의 一億三千萬弗에比하야 그二倍에 達하리라는것이 「마가진·오프·월·스트리트」의 推算이다。

×

그러나 一面 工場이나 商店建築이나 所謂 非住宅建築에對하야 第三·四半期의 活氣如何를 豫測함은 매우 困難하다 此等의 建築活動은 政府의 政策如何와 關係가만코 또 今年은 大統領選擧를 압두고 잇는때문이다 特히 「루즈벨트」政府는 從來 政府로그 比가 업는만큼 個人企業에關與하엿스므로 「루즈벨트」政府가 今後도 [illegible] 重要한關聯이잇고 따러서今秋의 大統領選擧는 從來以上으로 經濟關心의 一中心이되어잇스므로 [illegible]界에對한前途에잇서서도 이것을 度外視할수가업다 다만 最近[illegible] 業界의 景氣恢復은 事實上 工場의 增築이 必要하다는 傾向을보다 이것은 政治上의念慮를 [illegible]케하는것으로 第三·四半期의 非住宅建築의 [illegible] 도住宅建築 增大의 程度는아니나 [illegible] 어려고한다。

×

昨年 第三·四半期의 [illegible] 約高는 住宅建築、非住宅建築을 合하야 四億九千五百萬弗에 達한바 今年 第三·四半期에는 그보다도 約四億弗이 늘어서 九億弗에 達하리라고 [illegible]되다 또住宅建築의 增大와 同時에 家庭用品의 [illegible] 가 [illegible]될은 前記와 [illegible] 이것은 冷藏庫 洗濯機 [illegible] 增大로되야 나라 [illegible]것이라고 볼다 此等家庭用 [illegible] 增大가 集積되야 [illegible] 事業과 [illegible] 所謂重工業景氣進展上의 一大要素

[illegible]은 [illegible] 重工業은 [illegible] 增大에도 [illegible] 影響을 바들것이다。

×

그러므로 眼目을 重工業方面으로 돌려서 보자 [illegible]의 「레―루」와 [illegible]要는 매우 느릿고 또 電力消費가 記錄的高率을 보힌 結果 公共事業會社의 資本增加가 必要케되엇다 [illegible]는 [illegible]作業에잇서 全能力의 增大를 考慮하엿드면 最近의 作業率은 一九二九年時代의 能力이 入해에 達하엿슬것으로 [illegible]할수가 잇다 이런 [illegible]業 景氣恢復에 對하야는 現在에

그래지 不自然하다고 [illegible]分予도 업슴으로 不[illegible] 것가튼 不[illegible]도 업다 그러므로 여름이 되여서 多少의 [illegible]的反動이 잇다고 하드래도 그反動은 季節的反動以上의것은 아닐것으로 觀測된다 따라서 第三·四半期에 [illegible]作業率의 低下를 보드래도 그作業率은 昨年第三·四半期에 到達한 最低率보다 高率에 끄칠것이다 다시 第三·四半期의 後半에는 一九三七年頃[illegible] [illegible]로 [illegible]作業率의 增進을 보게될것이라고 하야 [illegible]界의 前途는 매우有望視된다。

―(完)―

天水에 依存하는 旱騷의 根本對策

天水畓灌漑改良、土改必要

當局이 內面工作中

數日來의 降雨로 旱騷은 大略 解消된모양인데 朝鮮의旱魃은 地理上 關係가잇는것이어서 全朝鮮的大洪水가 襲來하는것도 거이 周期的으로 볼수도 잇는것이다 그것은 古來로 天水畓은 三年만에 一回의 豊年이들면 好成績이라고일러온 것도 그方面의 消息을 說明할수 잇거니와 다른便으로 考究해보아도 現在 水稻作付面積은 約百六十萬町步中 天水畓의面積이 九十萬町步이나되어 平地의灌漑便利한畓은 洪水가잇스면凶作이되는 지만、天水畓은 平地의灌漑便利가잇는곳에 洪水가드는때라야 豊年이들다는 事實로보아도 朝鮮의 農作이라것은 天水의多寡가 가장 豊凶農에 도相反한다는 矛盾을가지고잇는것을알수잇다 이것은朝鮮의農作이 全혀天水關係에잇다고할것이나 水稻의面積의大部分이 灌漑의便을못가지고 天候의 [illegible]을 [illegible]하기만을 언제나企待한다는것은 極히不合理한것이다 그래서朝鮮農業을根本的으로改善함에는天水畓에 灌漑의便을준다는 土地改良의大手術을 한다는것이 가 原則的解決方法으로되여잇다 그래서農林當局에서는 產米增殖計畫에依한 土地改良事業은 全日本的米穀政策上 또는朝鮮內水利組合의設計의粗漏와 經營不成績에依한 一般의不平으로 마츰내 中止는하엿스나 朝鮮의農民이安心하고 營農할수잇고 또朝鮮農業의安全性을 確保한다는 旱魃의永久的 根本的對策으로 產米增殖計畫을 떠나서오는 天水畓中心의 灌漑改良 土地改良事業의 必要를 認하고 그內面工作을 하고잇서 農林省當局과도어느程度까지는 事務的打合도잇는 모양으로 機會잇는대로 土地改良事業의 復活을 하려는모양이다

米移出續增

粟輸入도增加

◇……六月中旬의數量

六月中旬의 朝鮮內米穀移動狀況을보면 前年同期보다는 米의移出、滿洲粟의輸入이 各增加를보앗다 春節에移出이 激減하엿든米는 初夏에들면서 漸騰한高市勢에依하야 朝鮮內의 糯米不足이라는 民衆의소래가 놉흠도 不拘하고 移出이盛行하야 五月中에는 移出百萬石이라는 新記錄을지엇더니 六月中旬에는 다시 移出二十二萬三千四石으로前年同期의 十七萬九千五百餘石에 比하야 四萬餘石의增加를 보앗고 十一月以後累計를보면 移出 七百五十一萬七千餘石으로 前年의 七百十七萬一千九百餘石에比하야 四十六萬六千二百餘石이增加를보이고잇다 그反面에 朝鮮內細民食糧의不足은 滿粟輸入激增의數字가 如實히 證明하고잇다 卽六月中旬의輸入은 五萬九百餘石으로前年同期의 二萬三百餘石보다 三萬五百餘石이 增加엿고 十一月以後累計는 五十萬二百餘石으로前年의 七十八萬四千餘石에 比하야 十一萬五千四百餘石의增加를보앗다

銀行增配는不許

上半業績良好이나

▲…西崎理財課長談

上半期의 金融情勢와 銀行決算에 對하야 總督府西崎理財課長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朝鮮的 低利時代의 展開는 銀行經營의利害를 急激히 低下케하엿스나 朝鮮의 特殊的으로近年旺盛한 事業資金의 需要가잇다 그러고 利率低下의 結果上半期의 各銀行業績은 一般이念慮하엿지만 良好한모양이다그러나 反動期에 備할 必要도잇서 前途에 對하야 樂觀을不許함으로 增配는 全然不許할方針인것은 變化가업다 金融界의 現在로서는 過渡期에 잇서 가장 戒心할 時期로생각한다

滿鐵總會開催

[東京電話] 滿鐵에서는 昨二十二日午後二時 丸之內滿鐵協會에서 第卅五回定期株主總會를 열고 松岡、大村正副總裁以下 各理事와 監事外株主約四百餘名이 出席한뒤 松岡總裁로부터 十年度中의滿洲經濟及 滿鐵의狀況、十一年度의滿鐵事業計畫槪要等에對하야 演述이잇고 다음에 議事에 드러가 當期利益處分案(配當政府持株四分四厘三毛 民間八分据置)를 原則附議可決하엿다 그리고 社債募集의件은 現行發行承認額二億一千二百四十八萬圓中 一千六百廿四萬八千圓에 不過하므로 今年度分으로 다시 一億圓發行에 對한 承認을 엇고 다음에 今年末任期滿了의 四監事後任選任의件은 四氏가 모두再選重任으로 決定한外 株主多年의 要望이든監事一名增員의件은 當該監事에 安宅彌吉氏(大阪商工會議所會頭)를 選任하고 同二時四十分 閉會하엿다고

現行稅關機構改革

稅關長會에諮問

朝鮮貿易은 十年度에 一躍十二億餘로 飛躍하엿고 更히 膨脹傾向을 最하는 情勢로서 貿易躍進에 伴하야 朝鮮의 現行關稅制度와 稅關機構에는 改革을要하는것이 적지안코 特히稅關機構와如한 經濟的地域의 實情에 副치안는것이잇는데 右에對하야 總督府財務局에서는 來七月十三日부터 二日間에 亘하야 稅關長會議를開催할 稅關長會議에 다음의諮問事項을 出하야 그所見을 徵求키로되엇다고

一、現行稅關制度及 稅關機構의 改革에 關한意見

二、最近의 國際經濟情勢의 變化와 朝鮮의 產業勃興及 對滿貿易進展狀況에鑑하야 貿易上考慮를要할것으로 認定되는事項及 關稅行政上施設又는 改善을要한다고 認하는事項

朝鮮內最高配當

"銃砲火藥"四割特配

朝鮮銃砲火藥會社는 二十一日定期總會를열고 다음과가튼利益金處分案을 可決한바 當期는 同社創立十五週年記念으로 年一割의普通配當外에年四割의 記念配當을하고 다시이五割의 配當金三圓十二錢五厘를 第二回五圓의拂込에充當키로되엇다 最近朝鮮內에잇서 이와가튼高率配當을한것은 朝鮮興業(一割五分配當) 朝鮮銃砲火藥會社뿐으로 配當制限問題를 떠드는이때 同社의今期利益金處分은 注目되는바 다음과가다고

(以下單位圓)

當期純益金四六、六七一▲前期繰越金四七、八五四▲計九四、五二五▲內法定積立金二、四〇〇▲別途積立金一〇、〇〇〇▲役員賞與金六、〇〇〇▲普通配當金一二、五〇〇▲特別配當五〇、〇〇〇▲後期繰越金一三、六二五

信託再利下

七月一日부터實施

朝鮮信託會社에서는 曩者 銀行預金利下를 하엿슴에 信託配當率도 四厘를引下하엿든바 다시 日本內地信託의 再利下에 追隨하야 다음과가티 二厘를引下를 七月一日로부터 實施키로되엇다

新利率

長期(二年以上) 四分六厘

短期(一年) 四分四厘

丸計總會不開催

丸計役員會는 二十日午後四時開催하고 一部株主로부터 要求한 臨時總會 開催件은 不應키로決定하얏다한다

經濟寸鐵

○重要產業統制 內外地 一元制에對하야 朝鮮商議는 總督府에 緊急動議로 反對可決코 陳情

○朝鮮商議反對의 反對論도 그럴듯

○本곳에서 筆硏를버서나와 鮮으로 들던 大工業은 國策上 當然히 筆硏를씨워야할일이라고

○商議의 反對陳情은 大資本家에게 아첨하는 態度라고 一部에서 非難

○是是非非를 가릴것도 업는일이지만 저의끼리 떠드는것이 구경거리

經濟界消息

○鮮滿拓殖創立委員不日內任命=鮮滿拓殖株式會社의創立委員은 準備委員會에서 詮衡中이더니 今明間 發令키로決定하고 委員은 日本內地、朝鮮의關係者를網羅할豫定으로 創立總會는 七月로될모양이라고

○朝鮮商議定時理事會開催=朝鮮商工會議所定期理事會는 七月下旬 仁川에서 열기로 決定하엿다고

○京城水產七分配內定=京城水產會社에서는 七月下旬定期總會를 열고 業績은良好하나 配當은七分据置로 內定하엿다고

○朝鮮製氷第二回拂込=朝鮮製氷會社는 七月初旬第二回拂込金一株五圓 合計十五萬圓을 徵

重要商品界事情

生絲市勢는 當分低迷

八百圓中心?

筆者 生絲市勢가 低價에서 百十餘圓의 騰勢를 나타내인 것은 近者에잇서 처음보는現象이다 그러나 騰勢가 너무急하엿든만큼 投機側의 新規買를 誘致하야 賣買가 매우 적게되엇다 그래서 매우 買警戒를 하는 傾向이 顯著케되엇다。

×

製絲家의 實彈的賣物도 騰勢緩漫의때에는 高價豫想에 놉혀 賣氣를나타내여서 팔지못하지마는 騰勢가 한풀 꺽기면 그때에는 實浴이 나오게되는바 이것은 心理的作用의所致로 볼것이다 더구나 春繭도 日本內地의 關東方面은 出廻旺盛期에 直面하고잇스므로 減產의소리가 잇스나 于先 이런 保險賣物의 重壓은 免키 어렵다 相當한 買物이 나와서 對抗치안흐면 그大賣物을 消化케될는지 疑問이다 實方이 損보고 處分하든지마는 當分 實需繁物時代의 低迷步調는 避할수업는것이다 그러나 이와가티 不知不識之間 賣込하는사람들中에는 實彈이 途케될것이므로 그機會를 타서 買拾하여놀것이다。

×

米國人絹의 昂騰은 이미豫知되엿든바로 이것이 多少라도 生絲消費의 增進으로 될 것은 當然하다 그래서 가령 六月中의 消費가 三萬五千俵以上으로 되면 그곳의 端境期在荷는 逼迫을 告하야 各實需側의 投機買를 喚起케할 것으로 意外의 高價를 보히게 될는지 모른다 日本內地도 今年에는 收繭減、絲目不良으로 新絲入荷는 時期가느저젓고 또 入荷壓迫은 解散케될모양이므로 需給數字를가지고 말하면 아모렇게 하야도 强氣를 내여버리기 어렵고 七月市勢는 八百圓中心으로되지안흘가。

×

압으로 米國도「뉴―나쓰·셀」의小賣景氣와 選擧戰의 人氣的政策으로 樂觀할수가 잇다 日本內地의 繭市勢는 關東地方이 比較的 桑葉高라고 하므로 그다지 높프감은 바랄수가업스나 어떠튼지 今年에 잇서 製絲家의 仕入은 高價로 되고말것이라는觀測이잇다

株式 低下後에 底堅

前場不勢 閑散嫌氣賣로 週末에比하야 東新六十錢低 三十二圓九十錢、日產二十錢低인 七十圓九十錢、鐘新二圓四十錢低(配當落)인百五十六圓四十錢、朝新三十錢低인 三十圓五十錢에各各大引

▲東新 三三〇(寄) 三三〇 三三〇 三三〇(引)

後場底堅 後場은 또底堅하야 下値이엇스니 卽東新百三十三圓二十錢、日產七十圓九十錢、鐘新百五十八圓十錢、朝新三十圓五十錢大引

閣議를重大視

重大國策을 審議할 來月三日의 閣議에서 產業統制와 增稅大綱이 나타나리라고 보고잇서 新規取引은 一齊警戒하고잇는터인데 休日을지난 今前場은 東京新이 百三十二圓五十錢에까지 賣込되고當地도二圓六十錢에까지 不勢이엇다 閑散의嫌氣까지겻처 끈끈하게賣하나 그比例로는 잘떠러지지도안코 下値味는依然하얏는바 一段百三十圓臺이 結局은잇고말것이라고 軟派는期코잇는모양이며 强氣로서는 암만해어도 잘떠러지지안흐니 當限納會에도 잘떠러지지안흐리라고

商況 [廿二日]

市場大蔵

㊑……東新은 또 二圓臺로 무너젓다 기스것과는모양▲嫌氣投一幕이 當然 順序라고도 하겟스나▲確定的 財政膨脹과 重點인푸레軍工業躍進으로 大勢를 打診한다면 株高는 約束되는일▲當限關係로月末高를 보일것이나 來月三日 閣議를 압두고서 十日前後 戒嚴令撤退로 一躍되는나 興味가잇슬듯

㊍……一休今朝는 天氣의快晴과共히 買氣다시 旺盛하야 約五十丁이나 反撥▲그主的原因은 實過의 反動又는 雨量不足이나 波瀾은갈사록重疊▲正米의實勢는 依然賣惜의關係로 强味를遂치안코 또게다가雨量未洽이加味한모양▲그러치만 今後雨量이充分하야 植付完了의謳歌를들하는때에는 賣惜農家로서도 不安이업지안흘것▲農家의賣物이現出한다고하면 需給의不安도 一掃될모양?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 四、二〇▲日本電工 九一、〇〇▲日本電工新 九三

鍾新配當落

鍾紡은 當地短期取引이 今日부터 配當落인때 旣落百五十八圓十錢에比하야 二圓九十錢下落(配當年二割五分据置 配當金三圓十二錢五厘)인 百五十五圓九十錢에 當하엿고 大引은 阪止다시 百六十圓四十錢 强調에伴하야 百五十六圓四十錢이엇다 鍾新은 日前配當査定重役會에서 增資問題를 끄내지아니하고 嫌氣로 百五十七圓臺에 떠러젓스나 鍾紡의 資金關係로보아拂込徵收가 意外로 速히리라고 事情通은보고잇서 下値買가 오스 前場에大阪서 다시百六十圓關門 肉迫의好勢이엇다 耳하야 月末高가잇스리라고도보는바 果如何

貿易推移注目

轉換期의 貿易이 中旬도 一千萬圓의 大入超이엇슴으로 週末市勢의 伸縮키하얏는데 그內容이 勢를 投機的輸入이 多數인 때문이라면 大入超라도 반드시 걱정할것도업다고 할수잇고 그보다도 今後米國의 景氣의 永續性과 이에伴하는 生絲輸出과 生絲價格의 推移及新市場에의 出品輸出情勢等이 注目되고잇다한다

期米 爆發

雨量不足

前場爆發 再昨後場阪地三十一圓十二錢止와 共히 三十一圓八十五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十四圓十五錢인 三丁高에 不過하엿스나 朝鮮의 雨不足을 機로한 買物이 輻輳하야 三十一圓五十五錢인 一擧三十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漸進의 步調로 節二十九錢으로 五錢까지 少弛하엿다가 二十九錢으로 返戾止 場하엿다가 五節二十九錢으로 十八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二十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少弛

後場은 三十一圓十九錢에 一丁低로始場後十七錢으로少弛하고 十九錢에 止場하다

비꺼자 一爆發

主因은 雨不足

一昨日南朝鮮의 好雨로 三十一圓七十錢臺까지 瓦落하엿든 當地市勢는 一休今朝에 入하야 天氣의 快晴과 雨量不足이 强材化하엿슬뿐아니라 阪地市勢가 또 한 堅實한 步調를 繼함으로 買物이 依然輻輳하야 一擧에 三十丁昂騰으로 因而步一步로 上放하야 喜雨의 市勢는 鳥有에歸하고 말엇다 그러나 今回의 雨量이 全朝鮮的으로 相當히 解渴은 되엿슬뿐아니라 上으로最高 公定米價의 牆壁이 걸처잇슴으로 前日의 高價는 容易하 上廻하지못할것갓고 又는압호로 降雨를 繼續하지 안는다고 限할수업는즉 買固執만할수 업을것갓다 要하면 三十二圓 七十錢은本月의 天井이될지 或은本年米價의 天井이될지도 亦未知인바 當分高價買로 警戒를要치안흘수업슬것으로 觀測된다

大勢의左右는

全혀天災如何

一昨日의 朝鮮의降雨는 一滴千金의甘雨로 비록僅少하다할지라도 旱地의民心을 얼마큼緩和케하엿스며 딸아서當地市勢의 卅餘丁의反落을비롯하야 東阪其他市勢가 모다樂觀的行動을하엿다할수잇다 그런데 今朝當地는雨量不足이란條件압에 鳥合의買物이 輻輳漸進하야 約五十丁의 突進으로 降雨前의市勢를上廻하고말엇다 要하면 降雨의影響은 卅五丁밧게아니되고 雨量이적다고해서 約五十丁의反撥을示한은 一時的人氣의煽動으로 吹價를生한感이업지 안나하나 全朝鮮을通하야 平均數十미리의慈雨가잇섯슴에도 全然無視하고 旱魃當時 그대로의高價를維持함은 市勢의 一矛盾으로보지안흘수도업다 何如間압호로의大勢는 全혀天氣 一本에 잇다할수잇슴으로 一點雲 一滴雨에 莫大한 關係가잇슬것갓다 果然如何?

仁川在米減少

【仁川】六月二十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合計米는 二、六六一叺의減少를 示하엿는데 在庫品을細別하면 左와如하다

朝取期米取組內容

東京國債市場

今日財界 (廿二日)

各地正米

東城奔騰 大邱不變 仁川昂進 釜山續軟 群山焦付 木浦同調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北九州의 降雨와 當先高見强氣의 押目待買로 地場二、三流側强氣의 買乘으로 上買成을 促進하야 反撥이엇스나 上伸力이 具待의賣物이出現하야 硬軟共히 付添하얏다 突然警戒로 底意頑强이엇다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米 仁川 東益商店 株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光皿

株式 期米 玉 柳來商店

金.銀.白金 德 臨時賣買(金引換)代金文注方地 金元料送要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②3939 振替京城234

高價買入 土金 福 石金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